

2024 봄/ 연구 과정

영산신학의 DNA 세미나

배현성 교수(Ph.D) 저

영산신학의 DNA 세미나 목차

1부: 관점 (Perspective)

1

1장: 영산신학의 DNA로서 희망	2
2장: 신학적 유비를 통해 본 영산신학의 특성들	5
I. 젓가락의 함의성들	
II. 젓가락의 함의성을 통해 영산신학의 특성들	
3장: 영산의 통전적 신학방법론	15
I. 이원론 극복의 틀	
II. 통전적 방법론의 모형	
III. 통전적 방법론을 이끄는 모체로서의 성령론	
4장: 영산 신학의 본질과 특성들	21
I. 영산신학의 본질	
II. 영산신학의 분석	

2부: 구조 (Structure)

29

5장: 영산의 희망 해석	30
I. 실존론적(existential) 해석	
II. 오순절 카리스마적(Pentecostal Charismatic) 해석	
III. 통전적(holistic) 해석	
IV. 변혁적(transformational) 해석	
6장: 영산의 희망과 삶의 자리의 신학	37
7장: 영산의 희망과 전인구원의 신학	39
8장: 영산의 희망과 오순절 경험의 신학	43
I. 계속성(continuity)	
II. 구별성(Distinction)	
III. 후속성(Subsequence)	

9장: 영산의 희망과 좋으신 하나님신학 51

- I. 두려움과 속박으로부터의 해방 (Freedom)
- II. 하나님의 은혜 (Grace)
- III. ‘공의’와 ‘사랑’(Righteousness and Love)
- IV. 축복(Blessings)
- V. 신유(Divine Healing)

3부: 적용 (Application)

54

10장: 영산의 희망과 4차원의 영성 55

- I. 4차원의 영성의 활용
- II. 4차원의 영성의 4가지 요소들
- III. 4차원의 영성에 대한 질문과 올바른 인식
- IV. 제언들
- V. ‘4차원의 영적 세계’ 에 관한 영산과의 대답

1부: 관점 (Perspective)

사람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관점(perspective)에 따라 세계를 보고 생각한다. 따라서 어떤 관점으로 세계를 바라보느냐에 따라 세계는 달리 보여 질 수 있다. 신학을 하는 데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때문에 신학적 관점이 신학의 방향을 좌우한다. 예수님께서서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네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마6:23)고 하시면서 사람의 안력(眼力)에 따라 삶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를 말씀하셨다. 따라서 올바른 관점을 갖는 것처럼 신학의 의미와 가치를 뜻있게 하는 것이 없다. 특히 후기현대주의(Postmodernism)를 살아가는 우리로서는 그 어느 시대 보다 갈등 속에 있다. 상대주의(relativism), 다원주의(pluralism) 그리고 해체주의(deconstructionism)가 주도하는 사상의 흐름 속에서 과연 우리는 어떤 관점을 갖고 신학을 해야 하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관점과 관련하여 여기서 ‘희망’을 말하고자 한다. 왜냐하면 ‘희망’이라는 주제 안에 ‘영산’의 목회와 신학 그리고 영성이 녹아 있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영산의 희망은 그의 목회와 신학의 중심을 형성하는 DNA라고 말할 수 있다. 6. 25 전쟁 이후 한국의 50-60년대의 시대적 실상은 그야말로 피폐하기 이루 말할 수 없었던 절망 그 자체였다. 그런데 그와같은 상황 속에서 ‘희망’을 노래했던 목회자가 바로 영산이었다. 한국적 상황에서 영산하면 순복음의 대명사가 되어 버린 것이 사실이다. 영산은 그만큼 순복음과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다. 다시 말해 그의 신앙과 신학은 순복음의 신앙과 신학과 분리해서 생각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그만큼 영산이 순복음에 미친 영향력은 지대하다. 그러기에 ‘순복음’과 ‘영산’에는 상호 보완적인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따로 떨어져 생각할 수 있는 분야가 결코 아니다. 그러기에 순복음하면 영산, 영산하면 순복음이 연상되는 것이다. 신학은 궁극적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아 보이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 그런 관점에서 1부는 영산이 희망을 중심으로 목회와 신학을 펼쳐게 된 배경과 이를 이끌어 가는 방법론적 틀 그리고 거기에 담긴 의미들을 다루게 될 것이다.

1장: 영산신학의 DNA로서 희망

요한 웨슬레가 18세기 산업혁명의 와중에서 침체된 영국교회에 영적 각성을 피하였다면, 영산은 6.25동란 이후 절망과 좌절의 늪에서 신음하던 한국 사회와 교회에 ‘희망의 메시지’를 전함으로써 사람들을 희망으로 안내하는 포문을 열어 놓았다. 영산은 절대절망 속에서 신음하는 사람들의 필요를 채우는 목회를 다짐하며 ‘희망’을 전하고 가르쳤다. 영산의 목회철학과 신학사상을 관통하는 중심 주제는 ‘희망’이다. 즉, 영산의 신학 속에 용해되어 있는 ‘오중복음’과 ‘삼중축복’, ‘좋은신 하나님’ 사상, ‘하나님의 나라’이해 등에는 모두 ‘희망’이라는 신학적 DNA가 바탕이 되어 있다. 이처럼 ‘희망’은 영산의 목회와 신학을 이해하는 준거가 된다. 희망에 대한 인식 없이 영산의 신학사상을 논하는 것은 무의미하며 따라서 영산은 또 다른 ‘희망의 신학’의 지평을 열어 놓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본 강의는 60년 목회사역을 통해 검증된 영산의 신학을 희망의 관점에서 조명해 봄으로써 오늘날 세속화의 물결 속에서 어떻게 교회가 기독교적 정체성을 공고히 하고 이를

확산시켜 나갈 것인가를 모색하는 데 있다. 신학은 기독교 신앙의 본질적인 개념들을 강조하는 신학적 정통성(orthodoxy)과 더불어 그것들을 삶에 적용하려는 실천성(praxis)을 중요시한다. 신학은 정통성을 통해 그 자리 매김이 이루어지는 반면, 실천성을 통해 자체의 존립 이유와 목적을 확인하게 된다. 그러기에 정통성과 실천성은 신학의 건전성 여부를 진단해내는 시금석이 된다. 실천적 신앙이 전제되지 않은 신학은 생명이 없으며, 정통적 신학이 배제된 신앙은 맹목적이 된다. 영산의 신학은 초대교회의 오순절적 정통성을 이어가며, 땅 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적 실천성을 통전적으로 수렴한다. 정통성과 실천성이 조화하는 신학적 특성이 있기에 부분적이지 않고 통전적이며, 선교를 지향하기에 정적이기보다는 역동적인 특성이 내재되어 있는 것이다. 이러한 신학은 삶의 한 가운데서 갈등하는 현대인들에게 다가가 그들의 문제들을 파악하여 진단해 주며, 나아가 처방과 처방책을 제시할 수 있는 것이다.

한국 교회 내에 만연하고 있는 신학과 신앙의 이원화된 양상의 원인은 무엇보다도 신학이 신학논쟁이나 교과의 이해관계를 피하는 수단으로만 전용되고, 신학이 학문의 자유와 창의성이라는 미명아래 교회와 사람들의 삶과 무관한 방향으로 치달았던 데 기인한다. 신학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 삶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삶 속에서 제기되는 문제점들을 성경에 기초해서 응답을 모색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기에 신학은 언제나 ‘성령 신학’이요, ‘삶의 신학’이며, ‘성경 신학’이 되어야 한다. 신학이 이러한 신학적 패러다임(paradigm)을 갖고 신학화의 과정을 밟을 때 신학은 살아있는 신학이 되는 것이다. 영산은 50-60년대 한국이 처한 피폐한 사회, 경제적 상황 속에서 당시의 가난과 저주의 문제, 그리고 질병과 공포에 떠는 사람들의 절규가 하늘에 사무치는 상황을 직시하며 다음과 같이 하나님께 기도했다.

“하나님, 지금의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나이까? 이 험벗고 굶주리고 절망에 처한 사람들에게 무엇으로 소망과 새 생명을 줄 수 있습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나와 저들의 하나님은 어디 계시습니까?”

대다수의 교회들이 내세의 천국만을 말하며 종교적 색채를 강조하고 현세적인 문제를 비신앙적이라고 여기던 시대, 일찍이 영산은 당시 사람들의 ‘삶의 자리’(*sitz im leben*)에 관심을 갖고 그들의 필요(needs)를 채워줄 수 있는 신학이야말로 한국 교회에 필요한 신학임을 인식했던 것이다. 여기서 ‘삶의 자리’는 바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통로이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처소가 된다. 이러한 영산의 인식의 전환이 신학을 보는 관점에 있어 일대 전환을 가져 오게 되었고 ‘오중복음’과 ‘삼중축복’에 이어 ‘4차원의 영성’이라는 영산 특유의 신학의 장을 열게 된 것이다.

‘오중복음’과 ‘삼중축복’의 원리 그리고 ‘4차원의 영성’이 형성된 산실은 신학자의 연구실도 강의실도 아니었다. 그곳은 한국인들이 처한 삶의 피폐한 문제들에 대해 무릎 꿇고 문제의 해결점을 찾기 위해 눈물 흘린 한 목회자의 기도실이었으며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동분서주한 사역현장이었다. 영산은 사람들이 겪는 삶의 애환을 성경의 중심주제가 되는 오중복음(중생의 복음, 성령충만의 복음, 신유의 복음, 축복의 복음, 재림의 복음)에 투영시켰으며, 사람들의 영·혼·육의 전인구원을 안내하는 대안으로서 요한삼서 1장 2절을 분석하여 ‘삼중축복’의 개념을 제시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순복음신학은 삶의 문제에 대해 신학적 대안을 지닌 ‘삶의 신학’이며, 현대인의 삶의 필요에 묵묵부답하며 무기력한 채 고립되어 가는 신학의 실상을 통감하는 자기 성찰과 반성의 신학이기도 하다. 영산은 이러한 순복음신학을 자신이 개척하여 세계 최대의 교회로 성장시킨 ‘여의도순복음교회’라는 목회현장에 적용시켰던 것이다.

이러한 순복음신학의 신학적 근간은 초대 교회와 20세기 초에 나타났던 이른 비와 늦은 비 성령운동이었다. 순복음신학을 가리켜 한국적 상황에서 ‘토착화된 오순절신학’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오순절 신앙이 한국교회의 '삶의 자리' 속에 접맥, 발전되었다는 점과 무관하지 않다. 이렇게 되기까지 영산의 영향은 지대하다. 영산은 한국 교회에 오순절 성령운동을 실제적으로 전개하여 한국 교회를 성장으로 이끄는 데 견인차 역할을 감당했다. 다시 말해 영산은 2,000 년전 초대교회에 나타났던 '오순절 성령임재의 사건'이 현대 교회에서도 경험될 수 있음을 역설하면서 한국 교회에 '오순절 성령운동'을 실제적으로 소개하는 데 앞장섰다. 순복음신학을 말하면서 영산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영산은 과거 2,000 년전 팔레스틴 지역에서 불기 시작한 오순절적 성령의 역동성을 한국적 상황에 재현시키는 데 있어 신학적 타당성과 정당성을 검증하는 역할을 했다. 이러한 결과로 순복음신학은 한국적 상황 속에서 오순절적 가치체계를 새롭게 해석한 한국적 신학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던 것이다.

영산은 오순절 성령운동의 불씨를 한국이라는 토양에 뿌리는 사역을 해 왔다. 그로 인하여 이제 성령운동은 뿌리가 내리고 줄기와 가지가 형성되어 교회에 큰 영향력을 주입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영산으로 인해 발전할 수 있었던 성령운동을 보다 더 확산시켜 나가는 데 앞장서야 할 것이다. 영산은 순복음신학이 단순히 여러 신학의 부류 속에 있는 또 다른 하나의 신학으로 남는 데 의미를 두지 않는다. 더군다나 지엽적이고 교과주의적 입장을 두둔하고 옹호하기 위한 도구로 쓰임받는 것도 원치 않는다. 영산은 다만 순복음신학이 초대교회의 신앙적 요소들을 발굴하여 교회를 갱신하고 신학이 신학적 사명을 다하여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희망한다.

2장: 신학적 유비(Metaphor)를 통해 본 영산신학의 특성들

순복음이란 Full Gospel을 번역하여 표기한 말로서 20세기 오순절운동의 선구자였던 팔함(Parham) 목사에 의해 처음 사용된 용어이다. 본래 full은 ‘충만한’, ‘완전한’, ‘통전적인’ 또는 ‘순수한’이란 다양한 뜻이 있다. 따라서 Full Gospel은 충만한 복음, 완전하고 통전적인 복음, 또는 순수한 복음으로 번역될 수 있다. 그러나 이 땅에 오순절 신앙이 처음 소개되면서부터 Full Gospel은 純福音으로 표기되어 사용되었고 자연스럽게 복음에 내재된 순수성과 진정성의 측면이 강조되었다. 하나님의 성회 교단에 소속된 교회들 대부분은 교회의 명칭을 사용함에 있어 ‘순복음’이란 말을 붙이고 있다. 순복음신학은 무엇보다도 초대교회에 나타난 진리의 원형적 요소들(archetypal factors)을 성서와 기독교의 전통을 통해 발굴하며 그 진리의 요소들이 지니는 복음의 능력이 이 시대 사람들의 ‘삶의 자리’ 안에서도 여전히 경험될 수 있음을 강조한다. 따라서 순복음신학은 성서인 본문(text)과 교회의 전통(tradition) 그리고 시대적 상황(context)을 통해 진리의 실체를 경험케 하는 신학적 요소들을 강조하는 신학이다. 1장에서도 언급했지만 순복음신학은 영산과의 만남(encountering)을 통해 보완될 수 있었고, 보다 의미를 심화시킬 수 있었다. 다시 말해 영산의 60년간 목회적 경험과 신학적 사색이 순복음신학의 보편화와 일반화를 꾀하는 데 결정적이었다는 점이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말하는 순복음신학 안에는 영산의 신학적 특성들이 다수 함의되어 있는 것이다. 본 장에서는 순복음신학에 배어있는 영산의 신학적 특성들을 젓가락의 유비(metaphor)를 통해 살펴보도록 한다.

I. 젓가락의 함의성들

순복음신학은 다양한 신학적 함축성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신학적 함축성은 순복음신학의 정체성을 설명하는 중요한 요소들이 된다. 순복음신학은 이미 만들어진(already made) 완료형적 신학이기보다는 아직도 만들어져(still making) 가는 현재진행형적 신학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순복음신학에 대해 선부르게 정의 내리고 규정하기보다는 그 함축적인 상(image)을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수께서는 무리에게 ‘하나님 나라’에 관해 설명하실 때 그 실체를 사실적으로나 직접적인 방법으로 표현하기보다는 비유를 통해 말씀 하셨다. 따라서 순복음신학이 지닌 특성과 정체성을 표현해 낼 수 있는 도구로서 본 강의에서도 하나의 유비(metaphor)를 제시한다. 그것은 한국사람들의 음식 문화 속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젓가락’(chopsticks)이다. 젓가락은 한국인들의 음식 도구로서 순복음신학의 자기 정체성을 다양하게 함축하고 있다.

첫째로, 젓가락은 한국인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를 반영한다는 점이다. 즉, 한국사람에게 있어 젓가락은 음식문화를 접하는 데 있어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음식도구가 된다. 삶의 문화이기에 그것은 결코 형이상학적인 것이 아닌 생존과 직결된 문화이다. 순복음신학은 삶의 문제를 다루는 신학이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실질적인 문제를 해결하면서 그들에게 소망과 꿈을 심어주는 실제적인 측면을 중시한다. 단순히 신학적 사유에 그치는 신학이 아니라 삶에 적용시켜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신학이다. 따라서 영혼구원은 물론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 영·혼·육의 균형 잡힌 전인구원을 지향한다.

둘째로, 젓가락은 조화(harmony)를 지향하는 한국인이 지닌 통전적인 지혜와 깊은 철학이 담겨 있다는 점이다. 간단한 음식 도구이지만 젓가락은 우리가 간직하고 있는 삶의 의식을 엿보게 해 준다. 젓가락은 두 짝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두 짝은 각기 다른 역할을 하며 기능한다. 한 쪽이 지렛대 역할을 하며 젓가락을 지탱하게 해 준다면 다른 한 쪽은 움직이는 역할을 한다. 이처럼 젓가락은 지탱하고 움직이는 제각기 다른 역할이 서로 조화될 때 비로서 젓가락의 기능을 하게 되는 것이다. 다시 말해 젓가락은 사람의 손에 잡혀 각각의 동(動)적인 역할과 정(靜)적인 역할이 조화가 될 때 그 가치가 나타나게 된다. 음식문화에 사용되는 단순한 젓가락을 통해서도 우리는 한국인이 지닌 지혜와 의식을 일깨우는 가치관이 내재되어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그 가치관은 다름 아닌 조화를 중시하는 우리의 통전적 의식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의식이야말로 서구의 이원론적인 사상을 배격하며 신학이 본래적인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이끄는 요소가 됨을 부인할 수 없다.

셋째로, 젓가락은 우리의 공동체적인 관계성을 상징한다는 점이다. 한자로 인간을 사람 인(人)으로 표기한다. 상형문자인 한자를 통해 그 의미를 살펴본다면 사람 인(人)은 두 막대기로 되어 있다. 하나는 받쳐주고 하나는 걸쳐있는 두 막대기가 사람 인(人)을 형성하고 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인간이란 서로를 받쳐주고 걸칠 수 있는 존재로서 혼자 살 수 없고 서로를 지탱해 줄 수 있어야 살아갈 수 있는 공동체적 존재임을 알 수 있다. 음식물이 젓가락에 의해 취해지기 위해서 두 짝은 결코 평행선을 만들지 않는다. 한자의 사람 인(人)처럼 서로가 서로에 의해 지탱될 때 비로소 젓가락으로 음식을 취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는 사람들이 서로 더불어 공동체적 관계성을 형성하지 않는 한 인간은 본래적인 역할을 할 수 없는 자인 것이다. 순복음신학은 서로를 필요로 하는 공동체적 관계성을 중시한다. 함께 모여 공동체적 관계성을 형성 할 때 순복음신학의 진면목을 깨닫게 되는 것이다. 모여서 기도하고 함께 나누면서 서로의 필요를 채우는 '더불어 함께 하는 삶'을 강조하는 신학이 바로 순복음신학인 것이다. 젓가락 두 짝이 일치가 될 때 제 기능을 다 하듯이 순복음신학의 가능성은 공동체의 하나됨을 이끄는 요소에 있으며 이 요소야말로 한국 교회는 물론 세계 교회들을 하나로 이끄는 원동력이 된다. 이러한 순복음신학의 공동체적 관계성에 대한 강조는 결국 선교적 열정으로 연결된다.

넷째로, 젓가락은 이를 사용해 본 경험자에게 편리하다는 점이다. 역으로 말하면 젓가락을 사용해 본 경험이 전무한 자에게는 젓가락은 불편할 뿐이다. 젓가락은 반복적 사용을 통해 몸에 익숙해 져야 한다. 매일같이 사용하면서 훈련하지 않으면 젓가락을 적절하게 사용할 수 없다. 순복음신학은 많은 영적 훈련을 통해 하나님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신학이다. 기도와 금식, 전도와 봉사, 예배와 찬양 그리고 각종 모임을 통한 영성훈련은 순복음신학의 핵심적인 내용이 된다. 특별히 순복음신학은 성령의 은사를 개발하고 활용하여 복음의 증인된 삶을 살아 가도록 하는 데 지대한 관심을 갖는다. 젓가락을 사용 해 본 자들이 젓가락의 필요성을 느끼듯이 성령의 은사를 경험한 자들이 그 은사를 귀하게 여기고 더 큰 은사를 사모하게 되는 것이다. 순복음신학은 날마다 자신을 처서 주께 복종하는 훈련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도록 하는 실천신학적인 영성(spirituality)을 목표로 한다.

다섯째로, 젓가락은 우리의 문화라는 면에서 독특하다는 점이다. 젓가락은 한국과

중국 그리고 일본 및 동북아시아 지역은 물론 세계적으로 사용되는 세계화된 음식 문화의 중심이 되고 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오랜 역사 가운데 젓가락을 사용하면서 그것이 우리의 문화 속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젓가락은 우리의 음식문화로 토착화(indigenization)되고 적합성(relevance)을 갖게 되었다. 순복음신학은 오순절신학의 주류를 형성해 왔던 미국 하나님의 성회의 교리와 한국 교회의 정황이 반영되어 형성된 신학이다. 그러기에 우리가 순복음신학을 논할 때 오순절적 정통성은 물론 우리의 '삶의 자리'가 반영되고 투영된 우리의 신학적 정서를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여기에는 순복음신학이 문화를 변혁하며 그 변화된 문화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왔음을 간과할 수 없다. 따라서 우리는 순복음신학이 지닌 이와같은 문화적 특성에 많은 관심을 갖고 이를 신학화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젓가락은 서로 교차할 때 원하는 음식을 선택하여 먹을 수 있다는 점이다. 젓가락이 교차한다는 사실은 갈등과 긴장이 상존함을 의미한다. 젓가락이 서로 교차하지 않으면 원하는 음식을 취할 수 없다. 순복음신학은 갈등과 긴장관계를 신앙성숙의 중요한 요인으로 본다. 영산은 평생 십자가 신앙을 중심으로 자신을 철저히 부정했다. 하지만 부활 신앙을 통해 자신에게 부과된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 철저히 자신을 긍정한다. 절대긍정과 절대부정은 바로 긴장관계 속에서 얻어질 수 있는 신앙고백인 것이다. 이러한 긴장관계는 파괴적이기보다는 창조적인 것이다. 이러한 긴장을 가리켜 영국의 신학자 존 파렛트(John Parratt)는 '창조적 긴장'(creative tension)이라고 말한다. 이러한 '창조적 긴장'은 기독교적 신앙에 있어 대단히 유익한 요소가 아닐 수 없다. 순복음신학은 이러한 긴장과 갈등을 창조적이고 발전적으로 승화시키는 요인을 오순절 '성령의 임재하심'에 둔다. 따라서 순복음신학은 이러한 오순절 성령의 임재하심이 모순 대립적인 갈등구조를 창조적인 것으로 변혁시키는 주체가 됨을 신학적으로 표현하는 사명을 지니고 있다.

II. 젓가락의 함의성을 통해 본 영산신학의 특성들

영산은 원시기독교 공동체가 간직하고 있던 다양한 신앙적 유산들을 성찰하여 이 시대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실재화할 수 있는가에 대해 많은 관심을 기울여 왔다. 그는 이와같은 자세를 바탕으로 순복음신학이 보다 정통적(orthodox)이며 성서적(biblical)이며 사도적(apostolic)이고 정황적(contextual)이고 경험적(experiential)이고 통전적(holistic)임을 목회를 통해 증명할 수 있었다. 영산은 순복음신학을 통해 사회를 올바르게 보고, 분석하며 여기서 얻어진 스펙트럼을 '삶의 자리'(Sitz im Leben)에 적용하고자 했다. 영산은 궁극적으로 순복음신학에 전인적이며 통합적 요소가 내재되어 있는 '전인구원'으로 이끌 수 있었던 것이다.

A. 성령론적 경험의 신학

본래 기독교의 교리는 사변적 추론이나 결론에 도달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신앙의 구체적 경험에 의한 것이다. 오순절운동의 가장 뚜렷한 특성중의 하나는 성령론적 실제의 경험을 강조한다는 점이다. 여기서 말하는 경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현재적이며 살아있는 분으로서 삶 속에서 깨달아 질 수 있도록 돕는 매체라고 할 수 있다. 그랜트 왜커(Grant Wacker)는 오순절주의와 관련해서 “오랜

기간에 걸쳐 오순절주의는 일종의 총체적인 생활 양식이요, 실재를 보고 느끼고 경험하는 방식으로서 존재해 왔다”라고 말한다. 영산은 철저히 이러한 오순절주의의 전통 위에 서 있다. 히브리어로 ‘야다’(yada)라는 단어는 ‘알다’ 또는 ‘이해하다’라는 뜻이 있다. 그러나 그 알고 이해함에는 필연적으로 경험을 요청한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 하나님 임재하심은 현재적으로 경험해 봄으로써 깨달아 질 수 있다. 따라서 우리가 아는 앎이란 하나님의 임재를 단순히 머리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느끼고 그리고 몸으로 체득하여 알게 되는 것을 말한다. 여기서 ‘야다’의 대상이 사물이 아니라 하나님일 경우에는 몸으로 그 하나님을 경험하여 알게 되는 것이다. 마치 부부관계를 통해 남편과 아내가 더욱 서로를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경험은 단순히 현상적인 차원에 머물러 있는 것이기보다는 포괄적이고 통합적인 사물이해의 한 방법이 된다.

시편기자는 “너희는 야웨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라고 말함으로써 하나님 신앙을 미각적(味覺的)으로 표현하고 있다. 음식의 좋고 나쁨은 결국 맛으로 평가를 받게 된다. 야웨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라는 것은 결국 살아 계신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가를 직접적인 경험을 통해 분명히 깨달으라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베푸신 인자하심은 우리가 보고 깨달은 경험을 통해 그 진가를 깨닫게 되는 것이다.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존재자 인한 사물인식과 이해의 중요한 방법이 된다. 백문불여일견(百聞不如一見)이라는 말은 백 번 듣는 것이 한번 보는 것보다 못하다는 말이다. 듣는 것이 단순히 간접적인 감각의 영역이라면, 보는 것은 보다 더 직접적이고 포괄적인 감각의 영역이다. 소문이나 다른 사람들의 말을 통해 듣는 것보다는 자신이 직접 보고 경험하는 것이 사물인식에 있어 중요하다. 욥은 말하기를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삽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뵈옵나이다”라고 고백했다. 이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욥의 신앙은 단순히 이성으로 이해하는 차원을 넘어서 직접 하나님을 만나서 함께 하는 경험의 차원으로 발전될 수 있었다.

사도들이 증인으로서 담대히 복음을 외칠 수 있었던 원인은 사도행전 1장 8절의 예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한다. 예수와의 공동체 생활도 물론 중요했다. 그분의 인격을 함께 생활하면서 경험하는 것도 중요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성령의 임재하심의 경험이다. 누가 사울을 바울 되게 했는가? 누가 예수의 사람들을 결박하며 박해했던 사울을 사도로 공인했는가? 사도의 자격은 철저히 예수와 함께 하며 부활의 현장을 경험한 소수인들로 국한된 자들에게 주어 졌다. 그러나 바울만큼은 예외적인 인물중의 한 사람이다. 무엇이 그를 예외적으로 만들었는가? 바로 성령의 임재하심의 경험이다. 이 경험은 인간의 상식과 이해 수준을 넘어선다. 그만큼 우리의 신앙 생활에 있어서는 큰 의미를 부여하는 중대한 요인이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우리의 논리와 이해의 울타리에 갇혀 때로는 침묵하시는 상황을 우리는 안타깝게 여기지 아니할 수 없다. 성령은 때로 하나님의 신, 야웨의 신, 주의 신 등 성경 전반에서 무수히 기록되고 있다. 특히 사도행전은 성령의 행전이라 불릴만큼 처음부터 끝까지 성령의 역사로 가득 차 있다. 혹자는 사도들의 성령의 사역은 사도시대에 국한된 것이라고 말한다. 때문에 현대를 사는 그리스도인은 성령의 역사하심에 몰두하기보다는 성령의 상징적 의미를 캐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상징적인 의미도 교훈도 중요하다. 하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그 성령께서 지금, 여기라는 상황에서 나와 우리의 공동체에 오셔서 나와 공동체로 하여금 거듭나게 하시고, 성결하게 하시며, 복음의 증인되게 하시는 사역을 현재도 진행하고 계심을 확신해야 한다. 성령의 새롭게 하시는 역사, 생명의 역사가 나와 우리 공동체에 함께 할 때 우리는 비로소 능력 있는 하나님의 증인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영산의 신학과 신앙은 오순절사건에 나타난 성령의 임재하심과 직접적인 관계를 지닌다. 오순절사건은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십자가에 죽으심 및 부활 못지않게 구원사적 대 사건이다. 이 사건은 하나님 임재하심의 현재적 경험이라는 신학적 중요성을 지니고 있다. 오순절 마가 다락방의 공동체는 단순히 영적 황홀경을 체험한 자들에 의한 배타적인 공동체가 아닌 열린 공동체였다. 그들은 예루살렘에서 땅 끝까지 확산해 가면서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기 위해 목숨을 바쳤다. 결국 오순절 성령공동체는 구약의 '추수축제'라는 역사적 오순절을 하나님 임재하심으로 인한 '영적 축제'라는 현재적 오순절로 바꾸어 놓았다. 때문에 오순절사건은 하나님 임재하심의 경험이라는 중요한 요소가 함축되어 있다.

하지만 영산은 오순절신앙이 경험을 중시하는 것이 사실이지만 경험만이 모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사실 극단적인 경험은 또 다른 경험을 부른다. 그러기에 극단적 경험중심의 신앙은 만족함이 없다. 교회를 살펴보면 극단적인 경험주의는 신비주의를 낳으며 신비주의는 결국 기독교의 진리로부터 이탈되는 것을 보여 준다. 따라서 경험을 중시하는 오순절신앙에는 '성령의 질체의 열매'가 함께 요청되는 것이다. 이처럼 우리의 신앙영역에서 경험과 질체가 잘 조화를 이루는 것은 중요하다. 믿음은 바로 이러한 모든 요소들을 내재적으로 포괄하고 있다. 초대 오순절공동체의 영적 경험은 교회를 세우고 든든히 하는 데 유익했다. 하지만 그들은 경험중심의 신앙에 머물러 있지 않았다. 그들은 경험의 차원을 넘어서 보지 않고도 믿을 수 있는 믿음의 차원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었다. 도마는 부활하신 예수께서 현현 하셨던 장소에 없었다. 때문에 다른 동료들이 부활하신 예수에 대해 말할 때 믿을 수 없었다. 그 후 도마에게 직접 나타나신 예수께서는 "너는 나를 본 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 되도다"라고 말씀하셨다. 여기서 '본다'라는 것은 우리 육체의 감각기관을 통해 경험함을 의미한다. 그러나 보지 못하고 즉, 경험하지도 않고 믿을 수 있다는 것은 성숙한 신앙의 모습을 말한다. 믿음의 차원은 경험의 차원을 능가한다.

B. 오중복음과 삼중축복의 전인구원의 신학

이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있어 '전인적인 존재'가 된다는 것은 과연 무엇을 뜻하는가?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에는 여전히 구조적인 문제가 상존하고 있다. 특히 자본주의 경제체제 안에서 '가진 자들'과 '갖지 못한 자들'간의 골은 점점 깊어만 간다. 사상적인 대립은 더욱 심각하여 교회 안에서조차 좌파와 우파의 논리는 쉽게 해결점을 찾을 수 없는 상황에 있다. 무엇보다도 물질적 풍요 속에서 영적 기근 현상은 우리의 삶을 더욱 이원화시켜가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전인성(wholeness)을 향한 요청은 그 어느 시대보다 절실해져간다. 영산은 인간을 전인적 존재로 안내하는 데 있어 '오중복음과 삼중축복'을 제시했다. 영산의 오중복음과 삼중축복은 '좋은신 하나님'을 믿는 신문적 관점에서 성서의 가르침을 총체적으로 집결시켜 놓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오중복음과 삼중축복은 성서적이며 사도적인 전통 안에서 복음의 능력을 경험케 하는 실천적인 신앙과 신학의 원리들(principles)을 체계화시켜 놓은 것이다. 여기서 오중복음이 순복음의 조직신학적 체계라면 삼중축복은 실천신학적 체계이다. 즉, 성서의 복음과 관련하여 전자가 교리적 정통성(orthodoxy)을 말하는 것이라면 후자는 실천성(praxis)을 말한다. 영산은 순복음신학을 교리적 정통성과 더불어 삶의 자리의 실천성을 강조하는 균형잡힌 신학이 될 수 있도록 이끌었다. 오중복음은 성서 안에 내재되어 있는 다섯 가지 신학적 중심 주제들로서 중생, 성령충만, 신유, 축복, 재림을 말한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결교의 사중복음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러나 오중복음이 사중복음과 구별성이 있는 것은 사중복음이 복음을 그리스도의 사역과 관련해서 기독교적 관점을 중심으로 해석한 것이라면 오중복음은 복음을 삼위일체론적인 관점에서 해석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오중복음은 그리스도로 인한 중생을 다루는 기독교론, 성령충만을 다루는 성령론, 축복을 다루는 좋으신 하나님의 신론, 이 외에도 신유론과 종말론의 개념들이 함께 내재되어 있어 인간의 전인적인 삶을 안내한다. 사중복음이 오중복음을 형성하는 데 영향을 준 것은 사실이지만 오중복음이 단순히 사중복음에 축복을 추가하여 만들어진 개념은 아니다. 여기서 오중복음에서 말하는 축복이란 복음의 요소들과의 만남을 통해 성도들의 삶 가운데 경험되는 은혜의 통전적이고 전인적인 개념을 뜻한다. 그러기에 축복은 복음을 삶 속에서 실천함으로써 나타나는 실제적이고도 구체적인 하나님 사랑의 증거가 된다. 많은 교회들이 축복에 대한 관심은 지대하나 이를 성서적으로 온전히 가르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복에 대한 올바른 성서적 인식을 통해 성도들을 하나님의 축복된 삶으로 이끄는 것은 교회의 중요한 사명이 아닐 수 없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 복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증거이며 인간이 전인구원의 의미를 깨닫게 되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 따라서 이러한 복은 신앙인들에게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이다. 하지만 그와같은 복을 현세적이며, 피상적이며, 가시적인 측면에만 초점을 두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따라서 성서가 가르치는 복에 대한 폭넓고도, 깊이 있는 연구가 있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오중복음에서 언급하는 축복의 개념은 기복적이거나 무속적인 복과는 차원을 달리한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좋은 것을 허락하시며 이 좋은 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향유하는 구원과 직결 될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은 순복음신앙의 특성을 이루는 바, 하나님께 대한 절대 긍정적이며 적극적인 믿음으로 나타난다. 이를 위해 축복에 대한 성서적 이해가 더욱 요청된다. 구약은 그 복의 개념을 언약과 율법의 차원에서, 반면 신약은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차원에서 다룬다. 이러한 관점에서 클라우스 베스트만(Claus Westermann) 교수는 성서 전반을 통해 축복이 구원과 더불어 성서의 중심주제가 됨을 밝히고 있다.

오중복음이 영혼과 범사 그리고 육체적 건강의 영역 속에서 적용될 수 있는 실천적 장이 바로 요한삼서 2절에서 명시되고 있는 삼중축복이다. 본문에서 “사랑하는 자여” 라고 명시되듯이 영산의 긍정적 적극적 사유의 사상적 배경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에 기인한다. 즉,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점이다. 하나님은 사도 요한을 통해 하나님께서 지니신 ‘사랑의 속성’을 표현하셨다. 특히 요한삼서 2절에서 “사랑하는 자여”라고 호칭하심으로써 인간에게 가까이 다가 가시는 하나님의 의지를 깨닫게 된다. 성육신 사건은 하나님의 인간사랑에 대한 가장 구체적이고도 명확한 증거이다. 삼중축복의 수혜자는 이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사랑하는 자들”로 호칭 받는 자들이다. 그들은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을 통해서도 나타나고 있듯이 하나님께서 사랑하셨기에 독생자까지도 아끼지 않으시고 바치셔야 했던 자들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삼중축복은 ‘좋으신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허락하신 참된 사랑의 표현이다. 이는 전적으로 ‘좋으신 하나님’의 사랑이 배제되고서는 성취될 수 없는 것이기에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다. 삼중축복의 신학적 내용은 케네스 하긴(Kenneth E. Hagin)의 영향아래 50년대 이후로 미국에서 형성된 번영신학(prosperity theology)과 그 신학적 차별성을 지니고 있다. 번영신학이 ‘부’, ‘건강’, ‘행복’ 등 형통의 측면이 주로 강조되고 있는 반면 삼중축복은 ‘고난’까지도 축복의 개념 속에서 포함되고 있다는 점이다. 고난은 궁극적으로 새로운 세계를 열어갈 수 있는 잠재성과 관련되기에 그것은 단순히 고난으로 그치지 않고 축복과 연관된다. 영산이

이해하는 삼중축복은 고난조차도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개념으로 인식하는 긍정적 신앙적 사유 속에 있다. 이처럼 삼중축복에는 ‘축복’(blessing)과 ‘고난’(suffering)의 모순 대립적인 요인들이 극복되는 하나의 목적론적 개념이 있다. 따라서 전인구원의 과정 속에서 파생되는 고난의 경험은 그것이 우리를 파괴하는 것이기보다는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개념인 것이다.

C. 조화의 신학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의 세계는 지성과 영성의 조화를 통해 하나님을 알아 가는 여정(journey)이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진정한 믿음은 결코 영성만을 내세우지도 않고 지성만을 강조하지도 않는다는 점이다. 영성을 초월이성이라 한다면 지성은 자연이성이라고 할 수 있다. 인간이 흙으로 만들어 졌다는 점에서 인간이 자연이성의 범주 속에서 사물을 이해하고 생각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 이 땅의 세계에서 살아가는 한 인간은 자연법칙에 지배를 피할 수 없다. 그러나 그 세계만이 전부가 아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재라는 점에서 인간은 자연이성을 넘어선 초월의 세계에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여기에 바로 조화의 개념이 대두된다. 조화는 단순히 두 가지 개념의 혼합(mixture)이나 융합(fusion)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자신의 개체성을 잃고 중성화(neutralization)되는 것도 아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잃지 않으면서도 또 다른 개체성과 아름다운 화합을 이루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스도의 성육신(incarnation)이 그 좋은 예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삼위일체의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다. 이 땅에서의 공생애 사역 기간 중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이 일반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고통과 고난을 있는 그대로 감수하셨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셨지만 인간으로 오셔서 인간의 아픔을 있는 그대로 경험하셨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인간적인 고통을 경감하여 느끼시지 않았을까 라고 반문할 수도 있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다. 예수께서 당하신 고난은 인간이 받는 이상의 고통을 몸소 인간이 되셔서 경험하셨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예수께서는 하나님이신 신성을 그대로 지니고 계셨지만 한편으로는 인간이 지니는 인성을 그대로 유지하셨다는 점이다. 필요에 따라 신성을 인성으로 인성을 신성으로 대체하시지 않았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께서는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 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셨다. 하나님이셨지만 인간 예수로서 감당해야 할 육신적 고난 앞에서 고뇌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그대로 보여주는 장면이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결코 신성으로 인성이 감내 해야 할 십자가 고난을 피하지 않으셨다. 믿음은 우리의 신성적인 영적 세계를 강조한다. 또한 우리의 인성적인 지적세계를 중시한다. 다시 말해 믿음은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통해 신성과 인성이 하나됨의 신비의 영역임을 가리켜 준다. 순복음신학의 주된 신학적 방법론은 이원론의 철저한 배제에 있다. 깊은 영성은 깊은 지성을 요청한다. 따라서 영성과 지성이 만나는 조화와 하나됨의 통전성을 통해 ‘순복음신학’을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것이다. 결국 한쪽으로 치우치는 극단주의(extremism)나 사물을 양극화하고 이원화하여 이해하려는 이원론(dualism)은 신학에 있어 늘 경계해야 할 대상이 되는 것이다.

‘조화(調和)’라는 용어는 전인적이며 통전적인 특성을 함축한 개념이다. 순복음신학은 ‘조화’가 지닌 특성을 신학함의 중요한 요소로 삼는다. 지금의 기독교 신학이 형성되기까지의 과정을 살펴보면, 헤브라이즘(Hebraism)과 헬레니즘(Hellenism)이라는 두 가지 사상적 양대 산맥을 발견하게 된다. 이 두 사상은 서구신학의 모체가 될 뿐 아니라, 서양 문화의 뿌리라고 말할 수 있다.

19세기 말 서양 선교사들을 통해서 본격적으로 복음을 접했던 한국 개신교는 이미 새 천년인 21세기를 맞이했다. 그러나 그 간의 기독교 역사는 아직도 우리의 신학을 정립하기에는 그리 길지만은 않은 역사였다. 특히 헬레니즘의 이원론적인 사고 구조를 극복하는 데 있어 더 많은 시간이 요청됨이 사실이다. 헬레니즘적인 사고 유형은 주체와 객체로 이원화하여 사물을 바라보거나 이해하는 특성이 있다. 현대는 보다 다원적이며, 통전적인 사고를 요구하는 시대로 이전되고 있다. 때문에 신학함에 있어 기존의 이원론적인 사고의 바탕 위에서 신학을 해온 정신 유산을 청산하고 신학이 보다 신학다워 질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순복음신학은 조화라는 용어가 지니는 상징적이고도 함축적인 개념을 바탕으로 해서 한국 교회가 당면한 현실적인 문제점들을 치료하고, 나아가 한국적 신학의 지평을 열어 갈 잠재력을 지닌 신학이라고 말할 수 있다.

3장: 영산의 통전적 신학방법론

지성(intelligence)은 진리를 이성의 영역 안에서 분석하고 관찰하나 영성(spirituality)은 지성의 차원을 초월하여 '계시'의 영역에서 진리의 실체를 밝힌다. 지성이 이처럼 관찰을 통한 이해의 차원을 강조하는 반면 영성은 이해의 차원을 넘어 신비체험의 단계까지 연결시켜 준다. 여기서 영성이 지성의 차원을 초월한다는 말은 영성이 지성과 무관하다는 뜻이 아니라 지성의 차원을 통전적(holistic)으로 수용하면서 지성이 감지할 수 없는 세계까지도 보여 준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 이처럼 영성은 지성의 세계는 물론 지성의 세계가 볼 수 없는 세계까지도 포괄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영성은 통전적이다. 기독교의 진리는 지성에 반하여 영성만을 추구하거나 영성에 반하여 지성만을 추구하는 자세를 반대한다. 왜냐하면 진리는 그 특성상 이성과 계시의 영역 모두를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영산은 지금까지 전인구원을 강조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다. 전인구원이야 말로 하나님을 온전히 깨달을 때 나타나는 열매요, 은혜요, 축복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기에 영산의 신학세계에는 전인구원이 중심주제가 되는 것이다. 영산이 통전적인 사고를 가지고 목회를 하고, 신학을 할 수 있었던 것도 전인구원이라는 중심 주제를 다룰 수 있었다는 데 기인한다. 이러한 통전적인 사고는 단순히 신학함에만 머무르지 않고 삶의 모든 영역에 관계한다.

I. 이원론 극복의 틀

많은 신학자들이 진리이신 하나님을 이해한다는 의도에서 하나님을 대상화하고 객관화시켜 놓았다. 그러나 하나님을 대상화하고 객관화시켜 놓을수록 하나님은 인간 이성의 한계 내에서만 파악될 수 있는 하나님으로 잘못 이해될 수 있다. 따라서 하나님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는 관건은 하나님 인식에 있어 이원론적인 자세를 배격하고자 하는 시도 여부에 달려 있는 것이다. 신학은 과거 주체와 객체를 이원론적으로 분리시킴으로써 진리를 분석하고자 했다. 그러나 진리는 이원론적 자세로서는 접근할 수 없다. 진리의 실체이신 하나님을 이원론적으로 접근하려는 성향이 지속되는 한 사람들은 자신의 취향에 따라 만들어진 하나님을 이해할 뿐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는 없는 것이다. 하나님이 인간의 판단과 결정에 따라 정의 내려지고 이름 붙여지는 분이 아니라 스스로 계신 하나님으로 이해하는 인식의 전환점은 바로 이원론에 대한 거부에 있다. 즉, 하나님을 하나님 되도록 돌려놓는 작업이 바로 순복음신학이 지향하는 길이다. 따라서 우리가 신학을 보다 의미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는 이원화되어진 우리 의식의 회복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 신학은 아리스토텔레스나 플라톤의 영향을 받은 서양철학의 이원론적인 구조 속에서 침묵해 왔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아돌프 하르낙(Adolph Harnack)은 헬라철학에 영향을 받은 기독교가 진리를 너무 지성에 초점을 맞춘 나머지 진리를 형이상학적 도그마로 전락시켜 놓았다고 서양신학을 비판했다. 이와 관련하여 윌슨(Wilson)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서양의 신학은 반쪽(one-eyed)이다. 이는 많은 부분 서양신학이 학문적 논쟁을 중시하는 전통에 기인한다... 따라서 서양신학은 기독교를 편협적인 시각에서 본다고 할 수 있으며 따라서 이러한 부분은 시정되어야 한다.

이처럼 서양신학이 지닌 이원론적인 문제점들을 공감하지만 이를 지적하기 앞서 우리는 한국 교회 내에서 발견되는 이원론적인 현상들의 심각성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한국 교회는 예수(예수교)와 그리스도(기독교)께서 서로 대결의 위치에 있다는 웃지 못할 사실이 실재하고 있다. 한국 교회사를 살펴보면 사실 보수진영과 진보진영과의 신학적, 교리적 논쟁의 의 대결국면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처럼 한국 교회의 신학적 성향은 심각할 정도로 양극화, 양분화, 이원화 되어 있다. 그 예로써 장로교 신학이 예정론에 바탕을 둔 칼빈의 신학과 사상을 강조하고 있다면, 다른 한편으로 감리교 신학은 인간의 자유의지가 반영된 요한 웨슬리(John Wesley)의 신학과 사상을 강조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한국 교회 역시 윌슨(M. Wilson)이 말한 것처럼 반쪽 신학이라는 오명의 굴레를 벗어 날 수 없다. 반쪽 신학은 한쪽 측면만을 강조한다. 즉, 선택을 강요받는 신학이다. 선택은 진리 밖에 있을 때 진리를 받아들이기 위해 요청되는 행위이다. 하지만 이미 진리 안에 있을 때는 선택적이기보다는 진리 자체가 지닌 특성처럼 통전적이다. 하나님의 예정과 인간의 의지는 사실 어떠한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때문에 배타적 관점에서 이해할 것이 아니라 상호 보완관계에서 이해해야 한다. 영산은 통전적인 관점을 중시해 왔다. 즉, 보수와 진보 양쪽 측면의 일치와 조화를 강조했으며, 그것은 특정 방법론을 선택하여 한쪽을 편들고 다른 한쪽을 버리는 입장이 아니다. 그것은 두 가지 입장이 서로 보완관계를 통해 통전성을 회복하는 입장이다.

II. 통전적 방법론의 모형

기독교는 원래 통전적 전인성(wholeness)을 중시한다. 이러한 예는 먼저 요한복음 15장에 나타나는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통해 나타난다. 여기서 그리스도는 포도나무로, 교회의 지체인 성도들은 가지로 비유되는 되는 데, 중요한 점은 포도나무와 가지가 하나이듯이 그리스도와 성도들 역시 하나임을 강조하는 것이다. 본문에서 표현되었듯이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라는 말씀은 통전적 신학함의 모형을 제시한다. 여기서 주체와 객체의 구분은 있지만 그 구분은 분리가 아닌 하나됨으로 연결되어 통전적 가능성을 보여 준다.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통해 나타나는 통전적 신학의 원리는 바울의 신앙고백에서도 발견된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자신과 그리스도를 분리되지 않은 하나됨의 관계 속에서 이해하고 있다. 여기서 바울은 자신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관계에 있는지를 명시하고 있다. 그리스도와 바울은 분명 다른 인물들이다. 그러나 그리스도와 바울은 십자가를 통해 일체된 관계 속에 있는 하나됨을 보여 준다. 즉, 그리스도와 바울이라는 구분된 관계의 인물들임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자신을 그리스도와 분리된 별개의 관계로 인식하지 않고 동일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영산은 하나님을 대상화하여 분석하기보다는 그 하나님의 실재를 통전적으로 경험함을 통해 그 하나님과 하나 되고자 하는 데 관심을 두었다. 여기서 말하는 ‘통전적 경험’이란 하나님 안에 우리가 그리고 우리 안에 하나님이 함께 거하시는 신앙의 신비를 누리는 것이다. 따라서 영산은 우리와 하나 되신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고 인식할 수 있도록 가르치고 전했다. 그 예로, 영산은 ‘오중복음’을 통해 복음의 실체를, ‘삼중축복’을 통해 하나님 자녀가 갖는

권리로서의 전인구원의 축복을 가르쳐 왔다. 따라서 우리는 영산의 신학세계 속에서 통전적 가치성을 ‘오중복음과 삼중축복’ 안에서 발견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오중복음과 삼중축복은’ 그리스도와 하나됨을 경험케 하는 매체가 된다. 그러기에 우리는 영산에게서 ‘희망’을 읽게 되는 것이다. 그 희망은 복음 안에서 발견되는 현재적 희망임과 동시에,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 입증되는 종말론적 희망이기도 하다.

영산은 과거의 낡은 틀만을 답습하면서 사회로 하여금 교회 안에 들어오라는 극히 힘없고 제한된 외침이 얼마나 현대인에게 부정적일 수 있는가를 인식하고 있다. 진리에는 ‘하나의 진리’(a truth)와 ‘진리 자체’(the truth)로 구분될 수 있다. 여기서 전자는 시대와 상황에 따라 사용되기도 하지만 잊혀져 폐기되기도 하는 특징을 지녔다. 따라서 잠정적이요 일시적이요 잡다한 많은 진리 가운데 하나가 되는 진리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후자는 그리스도 예수 자신을 의미하는 것이며 시대와 상황에 관계없이 늘 진리로서 영원한 특징이 있다. 인간이 진리 밖에 있을 때는 그 진리를 선택하여 진리 안으로 들어와야 한다. 때문에 진리 밖에 있는 인간은 진리를 선택해야 하는 필연성이 뒤따른다. 즉 인간은 ‘진리 자체’(the truth)와 ‘하나의 진리’(a truth)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이것을 설명하는 방법론적 모형으로서 ‘either A(the truth) or B(a truth)’를 들 수 있다. 이 모형은 둘 중의 하나를 선택할 것을 요청한다. 그러나 이미 진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진리는 ‘하나의 진리’가 아닌 ‘진리 자체’이며 선택적(selective)이기보다는 통전적(holistic)이다. 진리가 지닌 다양하고도 구별된 특성들은 그 자체가 진리 안에서 통전적으로 조화를 이룬다. 예를 든다면 기독교인이 지닌 신성(deity)과 인성(humanity)의 양면은 각각의 개체성을 지니고 있으면서도 통전적으로 수렴되기에 ‘both A(deity) and B(humanity)’라는 통전적 방법론의 모델로서 설명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모델(both A and B)은 순복음신학의 내용과 특성을 설명하는 데 중요한 방법론적 틀이 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영산은 다음과 같이 입장을 설명하고 있다.

나는 항상 균형잡힌 신앙을 전하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 중 한 사람입니다. 어느 한 쪽만을 강조할 때 현실의 삶을 무시한 현실 도피의 신앙으로 치우치거나, 내세의 소망 없는 세속주의로 타락하게 됨을 나는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이란, 영혼이 구원받는다는 내세의 소망을 붙여 넣는 동시에 생활이 형통하고 건강하게 됨을 강조함으로써 현실의 삶을 결코 도외시 하지 않는 균형있는 건전한 삶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영산은 바로 이 두 영역 사이의 한계적인 위치에 서 있으면서 통전적으로 양자의 개념들을 통합한다. 여기서 우리는 그가 서구신학자들의 이분법적이며, 이원론적 경향성의 한계성을 극복하는 것을 본다. 그의 ‘희망신학’에 있어 통전적 신학방법론의 한 예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오중복음’과 ‘삼중축복’이다.

먼저, 영산의 ‘오중복음’에 있는 통전적 신학방법론이다. ‘오중복음’에는 사람들로 하여금 절망에서 벗어나 희망을 갖고 살수 있도록 하는 다섯 가지 신학 주제들이 있다. 그것은 그리스도를 통한 중생에 관한 기독교론과 성령충만에 관한 성령론, 사람들을 축복하시는 ‘중요신 하나님’ 신학과 신유를 다루는 신유론 그리고 미래의 사건들에 관한 종말론이 있다. 오중복음을 분석해 보면 ‘현재적 희망’과 ‘종말적 희망’이라는 두 가지 차원의 희망이 함께 공존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여기서 그 하나가 ‘중생’, ‘성령충만’, ‘신유’의 현재적 희망을 함의한다면 다른 하나는 ‘그리스도의 재림’이라는 종말론적 희망을 함의한다. 여기서

두 희망의 교량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축복’이다. 따라서 영산이 의미하는 축복은 ‘현재적’이며 ‘종말론적’인 두 속성 모두를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을 도출할 수 있다. 위에서 논의된 것처럼, 오중복음에는 통전적 신학방법론이 있다.

다음으로, 영산의 ‘전인구원’에 나타나는 통전적 신학방법론이다. ‘전인구원’으로 표현되기도 하는 ‘삼중축복’은 통전적인 신학방법론을 보여주는 확실한 예가 된다. 그것은 인간의 영혼과 범사 그리고 육의 통전적 삶을 안내하는 가시적이며 비가시적 하나님의 은혜이다. 실로 삼중축복은 영혼만을 강조해 왔던 ‘전통적 신학’과 ‘중산층 신학’에 일대 도전을 가했다. 삼중축복은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 필연적으로 접하게 되는 본질적 삶의 문제를 특정한 영역으로 국한하지 않는다. 삼중축복은 하나님 사랑의 영적측면은 물론 현실적 측면까지도 반영하는 중요한 개념이다. 삼중축복의 신학적 내용은 하긴(Kenneth E. Hagin)의 영향아래 50년대 미국에서 형성된 번영신학(prosperity theology)과 그 신학적 특성을 공유한다. 그러나 화용도 지적했듯이 영산이 미국식 번영의 복음의 한국관을 가르치고 있다고는 볼 수 없다. 물론, 두 신학 간에는 차이점이 있다. 번영신학이 ‘부’, ‘건강’, ‘행복’ 등 형통의 측면이 주로 강조되고 있는 반면 영산의 삼중축복은 ‘고난’까지도 통전적 관점에서 축복의 요인으로 간주하고 있다. 영산이 이해하는 삼중축복에는 이처럼 고난조차도 ‘하나님께서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롬8:28) 통전적 개념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삼중축복에는 ‘축복’(blessing)과 ‘고난’(suffering)의 대립적인 요인들이 함께 조화하는 통전적 신학방법론이 있는 것이다.

III. 통전적 방법론을 이끄는 모체로서의 성령론

영산은 성령론을 신학의 중심 주제로 이해할 뿐만 아니라 통전적 신학을 이끄는 요인이 됨을 강조한다. 과거 성령론을 단순히 형이상학적인 관점에서 다룬 바 있었기에 신학의 관심 속에 잊혀져 버린 주제였던 것과는 대조적으로 최근 성령론이 신학의 중심과제로서 부각되고 있다. 이처럼 성령과 오순절주의(Pentecostalism)에 관련된 이슈들이 신학계의 주요 연구 쟁점 분야로 등장되어 활발한 논의가 진행되는 것은 다행한 일이다. 그러나 아직도 성령이해에 있어 잘못된 가르침과 해석이 위험수위에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

영산은 성령을 궁극적인 실재(the ultimate reality)로 인식하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계시, 섭리, 의지를 이해한다. 영산에게 있어 신학의 역할은 궁극적 실재를 동시대 사람들에게 바로 해석해줄 수 있는 것과 관계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영산은 성령을 궁극적인 실재로써 ‘하나님 말씀’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경 독자의 상황 속에서 해석될 수 있도록 이끄는 요인임을 강조한다. 성령은 2,000여 년 전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와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를 깨닫게 한다. 성령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하게 하신다. 뿐만 아니라 성령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로고스일 뿐 아니라 그 로고스가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 각자에게 역사하는 레마의 말씀인 것을 동시에 인식시켜 준다. 따라서 하워드 어빈(Howard M. Ervin)이 강조하듯이, 성령이 말씀해석에 있어 중재자로서 역할을 하지 않는 한 진정한 해석은 없다. 이러한 관점은 멀리 종교개혁운동의 성경해석 방법론과도 연결이 된다. 칼빈(J. Calvin, 1509-1564)은 성령의 내적 증거의 원리를 성경해석의 원리로 제시하였고 또한 “성경은 스스로 해석한다”라고 말함으로서 성령이 성경을 해석하는 주체가 되심을 강조했다. 이것은 성령을 통해서 해석되고 깨달아진 한 절 한 절의 말씀은 다른 절의 해석에도 빛을 던져 줌으로 성경에 관한 시야를 넓혀 준다는 뜻을 함축하고 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물질의 풍요와 영의 빈곤이 맞물려 불협화음을

만들어 내고 있다. 성령이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할 때만이 비로소 자신의 존재에 대한 결정적인 깨달음이 가능하다. 에베소교인들을 향해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는 바울의 질문은 현시대 교회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 이 질문의 핵심은 그리스도인 신앙생활의 출발점이자 핵심은 곧 성령임재의 경험에 달려있음을 말하는 것이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영(성령)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는 것이다. 성령은 모든 철학적인 사색을 능가할 뿐만 아니라 모든 유형의 타종교들을 기독교와 구분 짓는 삼위일체 하나님이다. 성령은 신학의 방법론적, 해석학적 뿌리의 근간이 된다. 성령에 관한 논쟁과 학설들이 있어 왔지만 주로 교파와 교단의 신학성향에 따라 서로 다른 입장이 주장되어 왔음이 사실이다. 그러나 성령은 결코 교파의 신학성향이나 학자들의 견해 그리고 목회자들의 이해의 관점에 따라 정의되어서는 안 된다.

성령은 모순을 통합시켜 ‘그리스도의 완전’으로 향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다. 모순통합은 사실 인간의 논리로 설명될 수 없는 신비의 영역이다. 동양사상에서는 陰陽說(Yin-Yang theory) 또는 理氣說(Yi-Ki theory)에 나타나는 모순 통합을 시도하고자 했다. 그러나 이러한 동양의 음양설은 우주의 신비를 인간의 형이상학적 접근과 논리성을 결합시켜 형성된 지성주의(intellectualism)라는 틀 속에서 모순통합을 시도하고자 하는 한계점을 지니고 있다. 모순 통합은 인간의 이성과 논리적 사고의 틀로서는 설명될 수 없다. 다시 말해서 초월적인 성령의 임재하심을 필요로 한다.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속에는 많은 역설적인 진리가 있다. 살고자 하는 자는 죽고, 죽고자 하는 자는 살고, 오른 편 뺨을 치면 왼 편도 돌려대며, 속옷을 갖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주며, 5리를 가자는 자에게 10 리를 동행할 것을 가르치는 역설적인 가르침이 있다. 바로 이러한 역설적인 진리는 그 안에 모순이 통합되는 신비의 영역이 있다.

4장: 영산신학의 본질과 분석

신학은 하나님을 올바로 이해하기 위하여 인간의 언어와 논리를 바탕으로 구성하고 표현해 내는 학문이다. 따라서 신학 안에는 신적 초월(divine transcendence)과 인간적 실재(human reality)라는 두 가지 영역이 내재되어 있다. 신학(theology)이란 용어는 하나님과 말씀이라는 두 용어의 합성어로 이루어 졌다. 이는 바로 신학의 대상이 되는 하나님을 인간의 언어 및 논리 체계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신학의 본질적 사명임을 암시한다. 문제는 어떻게 초월하시는 하나님을 피조물인 인간이 언어와 논리체계로 모두 인식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다. 따라서 신학이 학문적인 차원 안에만 갇혀 있다면 신학은 하나님의 초월성을 언어의 실재성으로 표현하는 데 있어 많은 어려움과 한계성에 도달할 수밖에 없다. 신학이 타학문과 구분될 수 있는 이유는 신학이 초월적 계시성을 중시한다는 점이다. 하나님의

계시성은 초월과 실제의 괴리감을 극복하게 하는 중요한 매체가 된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계시성이 전제될 때 하나님은 인간과 세상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인 동시에 이 세상을 창조하셔서 인류의 역사 가운데 현존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된다. 영산은 지금까지 “나는 누구며, 어디로부터 와서,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는 사람들을 ‘생명의 길’로 안내 해 왔다. 신학이 본질적인 특성을 망각하고 여타 학문의 부류 안에 머물러만 있다면 신학은 생명력을 잃고 말 것이다. 영산의 신학에서 발견되는 본질적인 것은 신학이 생명력을 잃지 않고 ‘살아있는 신학’(living theology)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우리는 영산 신학에 담긴 본질이 무엇인가를 살펴보게 될 것이며, 또한 신학적 분석을 이며 또한 이를 위해 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본질적인 특성들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I. 영산신학의 본질

먼저, 영산신학의 본질은 통전적(holistic)인 데 있다. 신학 안에는 초월과 실제, 보이지 않는 세계와 보이는 세계, 영적 세계와 현실적인 삶의 세계, 하나님과 인간의 개념들이 함께 공존하고 있다. 신학은 초월적인 세계가 어떻게 실제적 세계와 만나며, 역으로 실제적 세계가 어떻게 초월적인 세계와 만나는 가를 묻는 질문에서 발견된다. 신학이 하나님의 초월성과 동떨어져 늘 현실만을 말할 때 신학은 이미 본래성을 상실한다. 뿐만 아니라 신학이 현실을 벗어나 늘 하나님과 초월적 개념만을 말할 때 역시 신학은 신학함의 의미를 잃는다. 교회사를 살펴보면 신학이 교회 내에서 어떻게 다루어져 왔는지를 보여 준다. 교회사의 많은 부분들은 신학을 이해함에 있어 초월과 실제라는 두 영역간의 자리다툼의 장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심각한 이분법적인 이원화의 현상을 보여 왔다. 다시 말해 신학이 지닌 본래적 특성이 편중되어 한 때는 초월적 특성만이 강조되고 다른 한 때는 실제적 입장만이 강조되는 과정을 밟아 왔던 것이다. 이러한 입장 모두는 참된 신학함의 결핍돌이 된다. 신학은 늘 초월과 현실세계를 오가며 어떻게 이 두 세계를 조화할 수 있는가를 질문한다. 그러나 두 세계의 조화(harmony)에 앞서 신학은 두 영역간의 긴장관계(tensional relationship)가 상존하고 있음을 가르쳐 준다. 신학이 긴장관계나 조화를 무시하고 단지 한쪽 편만을 택해 안주한다면 신학은 곧 본질을 잃고 변질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두 세계간의 긴장은 긍정적 측면을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긴장을 가리켜 ‘창조적 긴장’(creative tension)이라고 한다. 긴장이 상존함으로 신학에는 늘 고충(dilemma)이 따르는 것이다. 바울은 이러한 긴장과 조화의 의미가 어떠한 것임을 자신이 처한 ‘자유자와 종 그리고 ‘비천한 삶과 풍부한 삶’의 대립적인 상황을 통해 교훈하고 있다. 그러나 그는 스스로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고 고백함으로써 어느 한편에도 치우치지 않는 모순통합의 통전적 경지를 보여 주었다. 그는 분명 주님 안에서 자유자였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자유를 주를 위해 유보시켜 스스로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던 것이다. 뿐만 아니라 바울은 주 안에서 부요한 사람이었으나 복음을 위해 비천한 자의 위치를 감수하는 자가 되었다. 따라서 우리는 그를 가리켜 자유자이면서 종 된 자이고 부요한 자이면서 비천한 자라고 말하는 것이다. 그는 ‘삶과 죽음’의 상반적 문제도 그리스도와의 관계성 안에서 통전적으로 이해하고 있다. 따라서 바울에게 있어서는 삶의 영역과 죽음의 영역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수렴되고 있다. 즉,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과 죽는 것 모두가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바울은 두 영역 안에서 그리스도인 된 자신의 정체성을 표현했다. 그 정체성이란 결코 한 편에 치우치지도 않고,

그렇다고 둘이 혼용되어 각각의 개체성을 잃지도 않으면서 함께 조화할 수 있는 신비의 영역이다. 신학은 이처럼 두 영역이 만나는 위치에 서 있으며, 신학의 진정한 정체성은 바로 이 위치에서 발견되는 것이다. 영산이 강조하는 ‘희망’에는 늘 창조적 긴장이 상존한다. 여기서 ‘창조적 긴장’이라함은 ‘십자가와 부활’, ‘초월과 실재’, ‘자유자와 종’, ‘삶과 죽음’ 등과 같은 상반된 두 개념이 각각의 개체적 특성을 잃지 않고 서로 긴장된 분위기를 유지하는 가운데 통전적 하나로 이끄는 원동력을 의미한다. 영산은 희망에 내재된 이와같은 창조적 긴장을 통해 오중복음과 삼중축복의 신학을 전개할 수 있었다. 영산은 이처럼 상반된 두 개념이 지닌 갈등이 극복될 때 비로서 신학이 지닌 본질적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음을 강조해 왔다. 사실 기독교의 진리는 이러한 통전적 특성 위에 터를 두고 있는 것이다.

둘째로, 영산신학의 본질은 동시대적(contemporary)인 데 있다. 성서의 본문(text)안에 있는 진리는 불변하지만 그 진리를 적용시켜야 할 상황(context)은 늘 변한다. 신학은 성서의 진리를 과거적 개념으로만 보지 않는다. 신학은 성서의 진리를 지금(now), 이 자리(her)에 서 있는 동시대 사람들(contemporary people)에게 어떠한 의미로 다가오는가에 유의한다. 다시 말해 신학은 오래 전에 기록된 성서의 진리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 의미(meaning)나 상(image)을 희석시키지 않고 보다 생생하게 재현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신학이 ‘살아있는 신학’(living theology)을 추구한다는 것은 곧 신학이 동시대적인 상황에 관심을 기울인다는 것과 일맥상통한다. 즉, 신학은 동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성서의 진리를 변용 시키지 않고 어떻게 잘 전달할 수 있는가에 관심을 기울인다. 이러한 관점에서 신학의 진정한 의미는 명사형(noun form)에 있기 보다는 동사형(verb form)에 더 가깝다. 여기서 신학이 명사형이라는 것은 과거에 이미 정의가 내려져 더 이상 재해석과 추가적인 의미부여가 불가능함을 말한다. 이에 비해 신학이 동사형이라는 것은 늘 새로운 변화와 가능성의 여지가 있음을 암시한다. 신학은 이미 과거에 정의 내려진 기독교의 개념이나 명제를 단순히 받아들이기보다 현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계속해서 재해석해 내야 한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은 불변하지만 그 말씀을 적용시켜야 할 상황은 시대적으로 끊임없이 변화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신학은 패럿 교수(John Parratt)가 말한 것처럼 “신학은 항상 만들어져 가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신학의 목적과 관련해서 송기득 교수는 이렇게 말한다.

신학이란 그저 전통적인 신학의 이론이나 교회의 전통적인 교리를 변증하고 옹호하는 데만 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다. 사람의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절실한 실존적, 역사적 문제의 해결을 위해, 성서의 입장에서 그 대답을 모색하고, 그 대답에 이론적으로나 실제적으로 참여하는 것이어야 한다.

신학이 명사형이 될 때 그 신학은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실존적, 역사적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그러나 그 신학이 동사형이 될 때 그 신학은 현재와 미래를 지향하며 능동적이며 역동적인 신학이 될 수 있다. 유대교가 조상들로부터 전해 내려오는 유전과 전통에 간혀 하나님을 명사형의 차원에서 이해한다면 기독교는 그 하나님을 오늘 인간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 속에서 인간과 함께 하시는 동사형의 차원에서 이해한다는 점이다. 여기서 ‘삶의 자리’는 무엇보다도 동시대적 특성을 반영하는 중요한 개념이 아닐 수 없다. 영산의 목회와 신학은 공히 삶의 자리의 필요를 채우는 데 관심을 기울인다. 삶의 자리와 무관하지 않다. 삶에서 제기되는

문제점들을 무시하지 않는다. 이것은 영산이 신학이 동시대적인(contemporary) 특성을 지니고 있음을 반영하는 것이다.

셋째로, 영산신학의 본질적으로 성육신적(incarnational)인 데 있다. 기독교 교리의 중심에는 성육신(incarnation)의 복음이 있다. 성육신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속성을 가르치는 핵심 교리로서, 예수께서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인간이심을 확증하는 기독교의 신비(mystery)이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강림하셨다는 사실은 바로 인간을 사랑하시며 인간을 위해 활동하시는 하나님을 말한다. 기독교가 원시종교와 확연히 구분되는 요소를 든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인간에 대한 사랑이라고 할 수 있다. 원시종교에 있어 인간은 단지 신의 만족을 채우는 수단으로 존재할 뿐이다. 때문에 신의 편의에 따라 어느 때나 인간은 희생 제물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구약시대 몰렉은 백성들의 자녀들을 희생 제물로 바칠 것을 요구하는 이기적이며 무자비한 우상 신이었다. 따라서 인간은 몰렉 앞에서 단지 인격이 무시된 제물에 불과했다. 그러나 기독교의 하나님은 이방 몰렉의 신과 근본적으로 다르다.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성육신 사건이다. 성육신 사건을 통해 볼 수 있는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신 나머지 친히 육신을 입어 인간이 되셨을 뿐만 아니라 인간을 구원하기위해 십자가에서 희생 제물이 되셨다는 사실이다. 인간이 신을 위해 제물이 되기는 했지만 신이 인간을 위해 죽은 사례는 그 어느 원시 종교에서도 발견할 수 없다. 영산은 성육신 사건을 해석함에 있어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유한한 인간이 되셨다는 파격적 의미를 가르쳐 왔다. 뿐만 아니라 성육신 사건을 푸는 실마리로 “하나님은 사랑”임을 강조해왔다. 영산의 설교는 인간의 차원으로까지 한 없이 낮아지심을 통해 인간을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설교의 핵심을 형성한다. 그래서 그의 목회와 신학은 늘 청중의 눈높이에 맞추어져 있다. 그래서 그의 설교는 쉽다. 단순하다. 그러면서 핵심을 간파하는 통찰력이 있다. 신학의 본질이 성육신이라는 것은 신학의 정체성은 무엇이며, 또한 그 신학이 나아가 할 방향이 어디인지를 분명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함을 뜻한다.

넷째로, 영산신학의 본질은 선교 지향적(mission-oriented)인 데 있다. 성경은 열매 없이 잎만 무성한 나무를 가리켜 나무로서의 본래성을 상실한 것으로 평가한다. 나무에게 있어 잎의 일차적인 의의는 탄소동화작용을 통해 열매를 맺도록 하는 데 있다. 따라서 잎은 많으나 열매가 없는 나무가 있다면 그 나무는 나무로서의 가치를 잃은 것이다. 나무의 가치는 열매에 있다. 나무의 진가는 열매를 보아 알 수 있다. 신학도 마찬가지다. 잎만 무성한 신학은 외형적으로 좋아 보이지만 교회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 신학이 겉으로는 아무리 거창하고 그럴듯해 보여도 궁극적으로 사람을 진리와 생명으로 안내하지 못한다면 이는 곧 잎만 무성한 신학에 불과하고 만 것이다. 신학이 열매를 맺어야 함은 곧 신학이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할 본래적인 사명과 관계됨을 뜻한다. 그 본래적인 사명은 바로 선교에 있다. 교회의 사역에는 많은 다양성(diversity)이 있지만 결국 그 사역의 다양성은 선교라는 통일성(unity)으로 귀결되어야 한다. 신학이 “예수 그리스도의 위임명령”에 나타난 선교 중심성을 배제시켜 버린다면 이미 신학은 본질과 이탈되는 것이다. 오순절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는 궁극적인 목적도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는 데 있다. 교회 탄생의 궁극적 목적도 구원을 선포하는 사명과 직결된다. 바울의 일생일대의 관심이 복음을 증거함으로써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었듯이 영산 역시 그와같은 사역에 헌신을 다했다. 한국교회가 주로 국내에 관심을 두고 있을 때 영산은 여의도순복음교회를 통해 전세계 선교적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세계를 교구화로 삼았던 것이다. 일개 교회에서 파송된 선교사들의 수가 한

교단에서 파송한 선교사들 보다 많았다는 것은 영산이 얼마나 선교 지향적이었는가를 가늠할 수 있다.

II. 영산신학의 분석

1. 영산의 신학적 대중성

1960년대 초 월간 '순복음'지에 '삼박자 구원'과 '병을 짊어지신 예수님'이란 글을 연재하면서 영산은 자신의 신학에 대한 입장을 쉽고, 간결하고, 단순하게 표현하기 시작했다. 신학이 복잡하고 난해하다는 통념을 불식시키고 영산은 설교와 글을 통해 사람들에게 대중적으로 다가갈 수 있었다. 서울신학대학교의 박명수 교수는 영산이 웨슬레(Jonh Wesley)처럼 전통적이고 딱딱한 방법 대신 일반 대중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신학에 접근하는 "대중적인 신학자"로 밝히고 있다. 화용은 신학이 나가야 할 방향과 관련해서 "목회적이고 선교적이어야 한다"는 당위성을 제시했다. 영산의 신학이 대중적일 수 있는 이유는 화용이 말한 것처럼 그의 신학이 교회를 중심한 '목회적이고 선교적'인 특성을 반영하기 때문이다. 영산의 신학은 신학을 위한 신학이 아니라, 교회와 사람들을 위한 대중적 신학이었다. 임승안 교수는 영산의 신학이 지닌 대중적 특성을 다음과 같이 '목회적, 성서적, 체험적'이라는 관점에서 언급하고 있다.

조용기 목사의 신학은 목회, 성서, 가슴의 3대 못자리를 통하여 형성된다. 목회현장의 현실적이고 실존적인 문제들을 접하면서 몸부림치고, 말씀의 현장에서 문제의 열쇠를 발견하고, 기도 가운데 가슴으로 직접 체험하고 확신하게 된 바를 증거한 설교가 곧 그의 신학이다. 조용기 목사의 신학은 목회적이고, 성서적이고, 체험적이다.

영산에게 있어 설교는 신학이었고, 동시에 신학은 설교였다. 그러기에 그의 설교와 신학을 인위적으로 구분하려는 시도는 무의미하다. 그에게 있어서 설교와 신학은 희망을 매개체로 하여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며 그들의 마음을 직접적으로 어루만진다. 그의 이와 같은 설교와 신학은 절대절망에 처한 사람들에게 절대희망을 주기에 충분했다. 그의 설교와 신학은 단순(simple)하면서도 직접적(direct)이고 실제적(practical) 이면서도 역동적(dynamic)이어서 지친 현대인들에게 '희망'을 전달할 수 있었다.

2. 영산의 신학적 대상

영산의 신학적 대상은 소수의 엘리트 계층이라기보다는 삶의 절실한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는 사람들 이었다. 그러기에 영산의 관심은 자연히 이들이 접한 문제를 도와주어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는 것이다. 사람들이 처한 고난의 실존적 상황을 잘 표현하는 한국 용어로서 '한'(恨)이 있다. 과거의 한국역사를 조명할 때 우리는 종종 '한국인은 한 많은 민족'이라고 말한다. 그것은 개인 또는 집단적 분노의 감정으로서 계속되는 절망감으로 인해 비롯되는 심리적, 감정적 자기포기 또는 슬픔이다. 이러한 '한'은 주로 정의롭지 못한 사회구조 속에서 억압받는 사람들 가운데 나타나는 심리적 상태라고 할 수 있다. 때문에 한국적 상황에서 민중에 대하여 말할 때 함께 '한'에 대하여 언급하게 되는 것이다. 영산이 의미하는 '희망'은 이들 절대절망에 처한 사람들의 '한'을 성서적 관점에서 풀어주는 것이기도 하다. 다시 말해 '절대절망'에 처해 있던 사람들에게 '절대희망'을 주는 것이었다.

옥한흠 목사는 영산의 신학적 대상이 누구였는지를 초기 목회사역을 분석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기존교회에서는 절망에 처해 희망을 잃은 자들에게 관심을 두지 않았으나 조목사님은 그들에게 관심을 두었습니다. 기존교회에서 무시당하고 변방자로서 배회하던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이들과의 접촉점(a contact point)을 찾고자한 것은 조용기 목사님에게 있어서는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여기서 접촉점은 무엇입니까? 병든 자들에게 낳을 수 있다고 말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 부요케 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접촉점은 바로 희망이었습니다.

여기서 영산이 지향하는 중요한 관점을 발견할 수 있다. 그것은 바로 영산이 ‘희망’을 접촉점으로 하여 절망에 처한 자들을 대상으로 효과적인 사역을 펼칠 수 있었다는 점이다. 사실 민중신학이 가난하고 억압당하는 자들을 대상으로 신학을 전개했지만 실제로 그들이 구원받기 위해 몰려든 곳은 오순절 교회였다.

민중신학은 민중을 신학의 중심이슈로 삼았지만 정작 이들에게는 “호응을 얻지 못한 신학”이었고 따라서 “민중과 일정한 거리를 두고 있었다.”는 사람들의 불만을 피할 수 없는 것이다. 영산은 민중을 대상으로 하면서 이들이 세상 현실 속에서 어떤 ‘축복’과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인지에 대한 관심이 있다. 여기서 우리는 절대절망에 처한 자들에게 희망을 주려는 영산의 의지를 볼 수 있다.

3. 영산의 신학적 관점

영산은 58년 서울의 낙후된 변두리 지역인 불광동에 천막을 치고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교회를 개척했다. 그 지역 사람들은 희망 없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람들이었다. 남아공의 신학자 빌라 비센시오(Villa-Vicencio)는 이렇게 말했다.

신학이 일반 민중들이 제기하는 가장 시급한 문제들을 다루는 데 실패한다면 그것은 결코 신학이라고 할 수 없다

그것은 그가 일반 서민들이 삶 속에서 제기되는 문제에 대해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가를 짐작케 한다. 다시 말해 그는 신학이 현실 세계 속에서 제기되는 문제점들을 실제적 차원에서 해결해 줄 것을 의도 했다. 영산의 주된 신학적 관심은 사람들의 ‘삶의 자리’의 필요에 부응하기 위해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었다. 영산은 복음을 단순히 종교적 범주에서 해석하기를 원치 않는다. 오히려 그는 복음을 현실 삶의 상황에서 해석하여 사람들의 필요에 부응할 수 있기를 원한다. 그렇다고 해서 영산이 현실 삶의 문제가 기독교 신앙의 다른 가치에 우선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예수께서 당시 사람들의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여 주심으로 궁극적으로 그들을 영생으로 인도하셨던 것처럼, 영산은 현실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순간 사람들은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까지도 역시 발견하게 된다는 입장에 있다. ‘여의도순복음교회’를 세계 최대의 단일 교회로 만들 수 있었던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는 바로 영산의 ‘희망의 메시지’에 있다. 영산에게 있어 ‘희망’은 결코 관념적(ideal)이거나 형이상학적(metaphysical) 개념이 아니다. 그렇다고 단순히 미래에 대한 막연한 기대를 표현하는 개념도 아니다. 영산이 말하는 ‘희망’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다수의 사람들의 삶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것이다. 때문에 희망은 영산의 신학적 관점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영산의 신학적 관점에는

통전적(holistic)이며, 구체적(concrete)이고, 실제적인(practical) 개념을 담고 있다. '희망'은 영산의 목회철학과 신학을 동시에 이해할 수 있는 핵심 단서일 뿐만 아니라 그의 신학세계를 표현해 내는 '4차원적인 관점'인 것이다.

2부: 구조 (Structure)

영산의 신학은 어떤 콘텐츠를 가지고 있는가? 그 콘텐츠를 지탱하게 하고, 떠 받치는 요인들은 무엇인가? 우리는 영산 하면 '오중복음', '삼중축복(전인구원)' 그리고 '4차원의 영성'을 떠올린다. 50년대 말 비록 불광동 천막교회에서 시작된 그의 목회사역이었지만 그는 복음으로 한국 교회는 물론 사회에 도전을 가했다. 그 복음은 전쟁의 상흔 속에서 가난과 질병 그리고 절망에 찌들었던 당시 사람들에게 소망을 안겨다 주었고, 할 수 있다는 믿음을 안겨 주었으며, 하나님 사랑의 힘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를 실제로 보여 주었다. 영산은 것처럼 복음을 힘차게 선포했다. 그 복음선포는 그저 공허하게 하늘을 울리며 메아리 되어 되돌아오는 그런 것이 아니었다. 왜냐하면 그는 철저히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임했던 성령의 임재 속에서 신앙과 삶의 문제들을 통시적으로 품었기 때문이다. 당시 만해도 교회는 현세를 터부시하고 내세만을 바라보게 하는 분위기였다. 그러기에 "며칠 후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가 교회의 분위기를 점유하고 있는 대세였던 것이다. 그러기에 영산의 뱃속에는 오순절적인 DNA가 깊이 자리 잡고 있어 가는 곳마다, 외치는 곳마다 성령의 폭발적인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오순절 사도행전적 치유가 임했고, 문제가 해결되었으며, 이로 인해 하나님을 영접하는 구원의 능력이 가열차게 나타났던 것이다. 우리는 2부에서 이와같은 당시의 시대적 영성을 이끌 수 있었던 근원적인 구조(structure)에 관심을 기울인다. 그리고 그 구조를 희망의 신학, 삶의 신학, 전인구원의 신학, 오순절 경험의 신학, 좋으신 하나님 신학이라는 틀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다.

5장: 영산의 희망 해석

영산의 신학체계는 복음에 기초한 것으로서 오중복음, 삼중축복, 좋으신 하나님의 신학, 하나님의 나라 등이 있는 데 이들의 중심 주제는 '희망'이다. 따라서 우리는 그의 신학 체계가 희망에 의해 엮여져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절대절망에 처한 자들에게 절대희망을 주는 것은 그의 목회와 신학의 목적이었다. 오늘도, 영산의 신학은 한국교회로 하여금 희망을 향하여 나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도전을 가하고 있다. 영산은 일관되게 자신의 신학적 체계들의 중요성을 역설하면서 그 주제들과 '희망'의 관련성을 보여주려고 했다. 영산은 자신의 사역을 회고하면서 그의 분명한 비전을 복음과 희망을 연관시켜 보여 주고 있다.

절대 절망의 자리에 있는 자들에게 절대 희망을 붙여 주는 것이 복음의 진수요. 내가 지금까지 전해온 복음이요, 앞으로 평생 전할 복음의 핵심입니다.

기독교신앙의 최우선 과제는 절망에 처해 있는 자에게 희망을 안내하는 것이다. '희망'은 '믿음, 소망(희망), 사랑'이라는 기독교의 3대 덕목의 하나로서 매 시대마다 사람들에게 삶의 의미와 본질이 무엇인지에 대해 교훈해 왔다. 에른스트 블로흐(Ernst Bloch)의 저서 '희망의 원리'를 통해 사회 윤리학적 차원에서 다루어지다가 그 후 희망은 1964년 위르겐 몰트만의 「희망의 신학」(Theology of Hope) 출판을 기점으로 기독교 신학의 중심 이슈로 부상될 수 있었다. 몰트만은 오랜 시간 신학이 희망을 내팽개쳤던 실상에 대해 아쉬워하였다. 그는 기독교 고유의 주제인 희망이 다시금 이 시대의 아픔과 슬픔을 아우를 수 있기를 소망했다. 몰트만이 희망을 신학적 중심주제로 환원시켰다면, 영산은 희망을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 '삶의 자리'의 영역으로 환원시켰다. 서정민 교수는 영산의 '주제설교'를 분석하면서 주제의 분포 면에 있어 한 가지 주목할 만한 것을 제기한다.

평소 조용기의 목회적 신념 중의 하나인 '고난과 소의 속의 민중에게 실현 가능한 꿈과 희망을 주는 목회'와 관련된 비교적 독특한 설교 주제가 반복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즉, '기쁨'(5회), '꿈'(11회), '두려움'(10회), '미움'(24회), '생각'(10회), '소망'(10회), '절망'(10회) 등이다.

이처럼 영산은 두려움과 분노, 미움과 좌절 등으로 고난당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밝고 맑고 환한 인생을 살 수 있도록 꿈과 희망을 전했다. 영산은 자신이 추구하는 신학의 세계를 '희망'이라는 도구를 통해 해석하고 있다. 즉, 영산신학의 해석학적 모티프(motif)는 바로 희망인 것이다. 영산에게 있어 희망은 다양한 신학적 함의들(implications)을 지니고 있다. 희망은 영산의 신학을 절망에 처한 사람들과 연결시켜 주는 통로 역할을 하기도 한다. 따라서, '희망'의 다양한 함의성들을 해석하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다. 영산은 예수께서 전인사역을 하셨던 것처럼, 희망을 사람들에게 전하고(preach), 가르치며(teach) 또한 희망으로 치료(heal)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영산신학의 주된 논지는 희망이라고 말할 수 있다. 몰트만의 '희망신학'이 그의 신학적 창의성과 학문성에 의해 다듬어 졌다면, 영산의 '희망신학'은 자신의 교회인 여의도순복음교회에 대한 비전과 목회적 헌신에 의해 발전되었다. 그러기에 영산신학은 현장사역을 통해 검증된 '현장신학'(field theology)이며, 많은 사람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대중적 신학'(popular theology)인 것이다. 본 단원은 이러한 관점에서 영산의 '희망선포'에 있어 나타나는 신학적 함의들을 다양한 차원에서

해석하고자 한다.

I. 실존론적(existential) 해석- 희망선포의 이유

유사 이래로 인간은 자신의 기원과 존재의미 등에 관해 많은 질문들을 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 이해는 가변적(variable)이며, 모호하며(ambiguous), 대립적(opposite) 이어서 어떠한 인간에 대한 정의도 단순히 '현상들에 대한 묘사'(description of the phenomena)에 불과했다. 결과적으로, 그러한 시도는 '일방적'(one-sided)인 한계점을 벗어날 수 없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기독교는 성경을 통해 인류의 창조와 타락 사건 그리고 그리스도로부터의 구원에 이르는 길을 제시하면서 인간의 본질과 실존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인간 창조가 포함된 여섯째 날, 성경은 "ÇÏ³²ÒÀì ± ÁÖÀ,½Á δμç °ÍÀ» ²,½Á'í ²,½Á±âçì ½ÉÉ÷ ÁÁ¼Ö'ðñóì±고 말씀하시면서 인간의 높은 실존적 위상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아담의 범죄로 인해 그 후손인 인류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고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절대절망'의 실존적 위치에 처하게 된 것이다.

실존주의자 키에르케골(Kierkegaard)도 그의 저서 「불안의 개념」과 「죽음에 이르는 병」에서 인간이 처한 절망의 상황을 표현하면서, 인간에게는 불안과 죄책이 상존해 있다고 했다. 기독교는 전통적으로 본질과 실존을 분류해 왔다. 실존주의에 영향을 받은 톨리히(Paul Tillich)는 본질에 '피조적 선'(the created goodness)이 내재되어 있다면, 실존에는 '왜곡된 실존'(the distorted existence)이 있음을 밝히고 있다. 여기서, 톨리히가 말하는 인간의 소외와 죄는 본질에서 실존으로의 전이에서 기인한다. 열일곱의 나이에 불치의 질병인 폐결핵으로 쓰러져 학교를 중단하고 병상에 누워있던 영산은 절대절망에 처한 인간의 실존에 대해 많은 생각을 했다. 영산은 위의 두 사람의 영향을 받아 자신의 신학적 지평을 넓힐 수 있었다. 절대절망에 처한 인간을 실존론적 관점에서 해석하고 있는 것이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인간은 절망을 안고 살아갑니다. 인간은 근본적으로 절망적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음으로써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 영혼이 죽었으며 육체도 저주의 가시와 엉덩퀴 가운데 살다가 끝내 흙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한마디로 인간은 죄책과 정죄의 존재, 허무와 무의미의 존재, 죽음과 무의 존재입니다....이런 인간에게 희망으로 오신 분이 누구십니까? 그 분은 단 한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영산은 처음 교회에 출석한 결신자들에게 “나는 죄인입니다. 어디로부터 와서,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살았습니다”라는 기도를 따라하게 한다. 영산은 이렇게 함으로써 인간은 죄로 인한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삶의 진정한 의미와 방향과 목적을 망각한 채 살아가는 존재임을 깨닫게 하고자 한 것이다. 이처럼 영산은 '희망'을 말하기 앞서 인간이 처한 실존적 상황을 강조한다. 즉, 그가 말하는 '희망'은 인간이 처한 실존론적 상황에 대한 자기 인식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다. 그가 말하는 희망의 개념은 세속사회에서 추구되는 것처럼 단순히 기대하고 염원하는 차원을 넘는 것이다. 즉, 그것은 그리스도로 인하여 실존론적 실재를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요, 가능성인 것이다. 때문에 그는 인간이 처한 절대절망의 현실을 강조하면서 동시에 절대희망의 가능성을 말할 수 있는 것이다.

II. 오순절 카리스마적(Pentecostal Charismatic) 해석- 희망선포의 원동력

영산이 이해하는 '희망'에는 오순절 카리스마적 전통과 무관하지 않다. 여기서 오순절 카리스마적 전통이라 함은 성령에 대해 열린 자세를 취함으로써 경험하게 되는 성령론적 능력의 세계를 의미한다. 영산은 '기독교 신앙'을 간단명료하게 "예수 믿고, 성령 받아, 능력으로 사는 것"이라고 정의하면서 지금의 시대를 가리켜 "성령운동의 시대"라고 한다. 영산은 말 그대로 '성령의 사람'이다. 즉, 그는 성령세례 체험으로 시작하여 성령의 충만, 성령의 은사 그리고 성령의 열매로 이어지는 일련의 성령론적 과정(pneumatological process)을 희망의 차원에서 이해한다. 그러기에, 그의 '희망신학'의 내용에는 성령의 역사를 통한 기사와 이적(signs and wonders)과 신유, 축사 그리고 은사 등이 빠질 수 없다. 그는 희망을 이처럼 오순절 카리스마적 특성과 연결시켜 해석하고 있다. 영산이 이와 같은 오순절 카리스마적인 사역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교회를 개척하기 이전인 1950년대 초부터 미국에서 파송된 오순절 계통의 선교사들의 말씀을 통역하고 교제를 나누면서였다.

이들과의 만남을 갖게 되면서 그는 소위 전통적 오순절 신앙의 특징으로 불리는 방언과 신유를 경험했으며, 오순절신학이 무엇인지를 배웠고, 오순절 부흥 운동의 생생한 현장을 접할 수 있었다. 영산은 1992년 9월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세계 하나님의 성회 연합회' 창설과 더불어 초대 회장으로 선출됨으로써 이제 오순절주의에서 차지하는 세계적인 위상을 보여 주고 있다. 이를 기점으로 그는 더욱 자신이 배우고 경험한 오순절 영향력을 한국과 세계에 발휘하기 시작했다. 과거에는 선교사들의 통역을 돕는 조력자의 위치에 있었다면 이제는 오순절 세계에 영향력을 전달하는 세계적 인물이 된 것이다. 영산은 자신이 전통적 오순절주의자였지만 오순절주의만을 주장하지 않았다. 즉, 그는 신유운동에 세계적 운동가인 오랄 로버츠 목사(Oral Roberts)와의 만남이 있는 후 카리스마 운동에도 관심을 갖게 되었다. 그는 오랄 로버츠의 메시지를 통해 '희망'을 배웠다. 성서적, 목회적 관점에서 영산의 '희망신학'이 기초를 둔 요한 3서 1장 2절 말씀의 중요성을 그에게 인식시켜 준 사람이 오랄 로버츠였던 것이다. 영산은 그의 책과 메시지 그리고 개인적인 만남을 통하여 목회적으로, 신학적으로 큰 도전을 받았다. 그 후 표적과 기사, 축사 등 자신의 오순절 카리스마적 성향을 보여주기 시작했다.

오늘날 어떤 이들은 말씀만 증거하고 복음만 증거 하여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들은 복음증거와 함께 성령께서 표적과 기사로 역사하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거나 비난합니다...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면 반드시 그 결과로써 표적과 기사와 능력이 나타나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창조의 빛이 비추어 옛 사람이 벗겨져 나가고 옛 주인 마귀가 소리치며 나가기 때문입니다.

영산은 오순절 카리스마적 특징이 복음증거 시에 필연적으로 나타나야 하는 개념으로 이해한다. 그는 그 이유를 '옛 사람'과 '마귀'로부터의 해방이라고 하면서 결국 오순절 카리스마적 희망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오순절 카리스마적 희망은 사람들을 정적(static)이거나 비활동적인(inactive) 자세에서 떠나 보다 역동적(dynamic)이며 활동적(active)으로 만든다. 영산의 희망을 오순절 카리스마적 국면에서 해석해야 하는 이유는 성령의 역동성을 통해 복음을 보다 효과적으로 전함으로써 사람들에게 궁극적인 희망을 제시할 수 있기 때문이다.

III. 통전적(holistic) 해석- 희망선포의 신학적 방법론

영산은 희망을 담을 수 있는 신학적인 방법론에 관심을 둔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는 “무엇이 영산으로 하여금 지금까지 줄곧 희망을 일관성 있게 선포하게 하였는가?”라는 질문을 제기해 본다. 그 답은 그의 '통전적 신학방법론'에 있다. 우리는 초월과 실재,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 영적 세계와 현실 세계와 같은 논쟁점들이 상존하고 있는 세계에 살고 있다. 여기서 우리는 이와 같은 두 상이한 세계가 어떻게 서로 조화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함으로써 신학적 본질을 발견할 수 있다. 영산의 신학에는 대립적인 개념들을 통전적 방법으로 해석하게 하는 하나의 신학적 방법론이 있다. 예를 들어 기독교인이 지닌 신성(deity)과 인성(humanity)의 양면은 각각의 개체성(individuation)을 지니고 있으면서도 통합된다. 즉, 기독교인은 “신성과 인성 모두”(both deity and humanity)라는 통전적 방법론으로 설명할 수 있다. 즉, 기독교인은 “A와 B 모두”(both A and B)라는 방법론적 틀은 영산신학의 내용과 특성을 설명하는 데 중요하다. 결국, 그의 통전적 신학 방법론은 사물들을 균형잡힌 시각에서 볼 수 있도록 하는 도구인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그는 다음과 같이 입장을 설명하고 있다.

나는 항상 균형잡힌 신앙을 전하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 중 한 사람입니다. 어느 한 쪽만을 강조할 때 현실의 삶을 무시한 현실 도피의 신앙으로 치우치거나, 내세의 소망 없는 세속주의로 타락하게 됨을 나는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이란, 영혼이 구원받는다든 내세의 소망을 붙여 넣는 동시에 생활이 행복하고 건강하게 됨을 강조함으로써 현실의 삶을 결코 도외시 하지 않는 균형있는 건전한 삶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영산은 바로 이 두 영역 사이의 한계적인 위치에 서 있으면서 통전적으로 양자의 개념들을 통합한다. 여기서 우리는 그가 서구신학자들의 이분법적이며, 이원론적 경향성의 한계성을 극복하는 것을 본다. 영산의 '희망신학'에 있어 통전적 신학방법론의 한 예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오중복음'과 '삼중축복'이다.

먼저, 영산의 '오중복음'에 있는 통전적 신학방법론이다. '오중복음'에는 사람들로 하여금 절망에서 벗어나 희망을 갖고 살수 있도록 하는 다섯 가지 신학 주제들이 있다. 그것은 그리스도를 통한 중생에 관한 기독교론과 성령충만에 관한 성령론, 사람들을 축복하시는 '좋은신 하나님' 신학과 신유를 다루는 신유론 그리고 미래의 사건들에 관한 종말론이 있다. 오중복음을 분석해 보면 '현재적 희망'과 '종말적 희망'이라는 두 가지 차원의 희망이 함께 공존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여기서 그 하나가 '중생', '성령충만', '신유'의 현재적 희망을 함의한다면 다른 하나는 '그리스도의 재림'이라는 종말론적 희망을 함의한다. 여기서 두 희망의 교량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축복'이다. 따라서 영산이 의미하는 축복은 '현재적'이며 '종말론적'인 두 속성 모두를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을 도출할 수 있다. 위에서 논의된 것처럼, 오중복음에는 통전적 신학방법론이 있다.

다음으로, 영산의 '전인구원'에 나타나는 통전적 신학방법론이다. '전인구원'으로 표현되기도 하는 '삼중축복'은 통전적인 신학방법론을 보여주는 확실한 예가 된다. 그것은 인간의 영혼과 범사 그리고 육의 통전적 삶을 안내하는 가시적이며 비가시적 하나님의 은혜이다. 실로 삼중축복은 영혼만을 강조해 왔던 '전통적 신학'과 '중산층 신학'에 일대 도전을 가했다. 삼중축복은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 필연적으로 접하게 되는 본질적 삶의 문제를 특정한 영역으로 국한하지 않는다. 삼중축복은 하나님 사랑의 영적측면은 물론 현실적 측면까지도 반영하는 중요한 개념이다. 삼중축복의 신학적 내용은 하긴(Kenneth E. Hagin)의 영향아래 50년대 미국에서 형성된 번영신학(prosperity theology)과 그 신학적

특성을 공유한다. 그러나 화용도 지적했듯이 영산이 미국식 변영의 복음의 한국판을 가르치고 있다고는 볼 수 없다. 물론, 두 신학 간에는 차이점이 있다. 변영신학이 ‘부’, ‘건강’, ‘행복’ 등 형통의 측면이 주로 강조되고 있는 반면 영산의 삼중축복은 ‘고난’까지도 통전적 관점에서 축복의 요인으로 간주하고 있다. 영산이 이해하는 삼중축복에는 이처럼 고난조차도 ‘하나님께서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롬8:28) 통전적 개념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삼중축복에는 ‘축복’(blessing)과 ‘고난’(suffering)의 대립적인 요인들이 함께 조화하는 통전적 신학방법론이 있는 것이다.

IV. 변혁적(transformational) 해석- 희망 선포의 범주

성서는 인간이 지닌 세속된 성향을 왜곡됨 없이 노출시킴으로써 인간은 변혁되어야 할 존재임을 가르친다. 결과적으로 만일 사람이 자신들을 변혁할 기회를 잃어버린다면 그들이 살아가는 세상은 이전보다 더욱 악화될 것이다.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은 세속사회가 아주 용이하게 교회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니이버(H. R. Niebuhr)는 그의 저서 「그리스도와 문화(Christ and Culture)」에서 그리스도를 문화의 변혁자로 소개하고 있다. 그리스도는 ‘세속적인 것’(the secular)조차도 ‘거룩한 것’(the sacred)으로 변혁하시는 하나님이다. 베드로는 환상을 통해 하나님께서 자신의 고정 관념을 깨고 모든 더러운 것을 깨끗하게 하시는 변혁자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되었다. 영산이 바라보는 희망은 이처럼 속된 것을 거룩한 것으로 변혁하는 능력으로써 사회 문화적 상황과 관계한다. 그는 우리의 신앙고백은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교회 밖인 사회, 문화적 상황에서도 외쳐져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처럼 그는 희망을 사회 문화 변혁적 차원에서 해석하고 있다.

사람들의 삶의 형편이 나아짐에 따라 영산은 사회 문화적 상황의 변혁에 관심을 두기 시작했다. 이에 대하여 명성훈 목사는 영산이 1987년 이후로 한국의 사회, 문화, 정치적 상황에 상당한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고 설명한다. 그가 사회, 문화적 이슈에 관심이 적었다는 말이 있다. 하지만 실로 여의도순복음교회는 많은 사회적 돌봄의 활동과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예를 들어, 여의도순복음교회는 1984년부터 매년 심장병 어린이들에게 무료 시술을 전개하여 현재 5,000명 이상의 숫자에 이르고 있다. 이 사회활동은 지금도 그 규모를 넓혀가면서 어린이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고 있다. 영산은 또한 엘림복지타운을 운영하며 도움을 요청하고 의지할 곳 없는 노인들과 청소년들을 돌보고 있다. 그리고 1988년 국민일보를 창간하여 사회에 밝고 맑은 소식과 희망을 주입하는 일을 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업과 활동들은 그의 사회 문화적 변혁에 깊은 관심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6장: 영산의 희망과 삶의 자리의 신학

영산은 인간이 ‘삶의 자리’ 속에서 구체적으로 하나님과 만나고 그 감격과 기쁨을 표현해 내는 데 관심을 두어왔다. 오늘날 신학은 세계화의 시대를 맞이하면서 많은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 그러한 변화의 움직임 가운데 삶 속에서 신학적인 의미를 찾고자 하는 신학적 시도가 단연 중심이 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세계화와 특성화는 신학적 활로를 모색하는 데 있어 중요한 요인이 아닐 수 없다. 하지만 현대의 신학사상들을 교회에 여과과정 없이 소개한다면 적지 않은 신학적 논란과 문제를 일으키게 될 것이다. 오늘날 신학을 한다는 것은 단순히 이론적인 신학사상을 소개하고 수정, 보완하는 차원을 넘어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sitz im leben)를 반영하여 신학화(theologization)하는 전반적인 것을 포괄해야 한다. 따라서 신학이 사람들의 ‘삶의 자리’를 도외시하고 다만 신학적 논의의 대상으로만 사용되어진다면 신학은 교회와 성도들에게서 멀어 질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대다수의 교회들이 내세의 천국만을 말하며 종교적 색채를 강조하고 현세적인 문제를 비 신앙적이라고 여기던 시대, 일찍이 영산은 당시 사람들의 ‘삶의 자리’(sitz im leben)에 관심을 갖고 그들의 필요(needs)를 채워줄 수 있는 신학이야말로 한국 교회에 필요한 신학임을 인식했던 것이다. 여기서 ‘삶의 자리’는 바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통로이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처소가 된다.

영산 이해의 출발점은 삶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며, 삶 속에서 제기되는 질문들을 성서에 기초해서 응답을 모색하려는 데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영산의 신학은 상관관계적(corectional) 자세를 중요한 신학 방법론으로 취한다. 여기서 상관관계적이란 하나님의 초월성(transcendence)과 인간이 살아가는 실재성(reality)을 이원화하기보다는 이 둘 간의 상관성을 찾아 제기된 문제들의 응답을 모색하려는 신학적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영산은 폴 틸리히(Paul Tillich)의 신학 방법론에 도전을 받았다. 물론 틸리히의 신학적 관점을 모두 동의하지는 않았지만 영산은 틸리히의 상관관계의 개념을 신학에 접목시켜 질문하고 응답하는 신학적 방법론을 자신의 신학과 목회사역에 연결시켰다. 영산은 아무리 불려도 대답 없는 이름의 하나님이 아닌 인간이 접한 ‘삶의 자리’에 관심을 기울이시고 그들의 문제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상관관계적 방법으로 표현했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나는 누구이며, 어디로부터 와서,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가는가?” 라는 질문은 신학이 사변적이며, 형이상학적 일변도의 방향에서 선회하여 보다 근본적인 차원에서 자신의 존재의미를 묻고 있음을 보여 준다. 이 질문은 결국 신학이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성에서 시작되는 것을 말하기에 순복음신학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적 신학(relationational theology)이라고 말할 수 있다. 즉 삶의 실제적 필요를 채우는 일에 무관하지 않다는 점에서 ‘삶의 자리의 신학’이라고 할 수 있다.

영국의 역사학자 토인비(Arnold Joseph Toynbee, 1889-1975)는 그의 저서 『역사의 연구』(A Study of History)에서 도전과 응전이라는 개념을 통해 인류 문명의 발달과 쇠퇴, 해체 과정을 다루고 있다. 그의 말대로 역사는 도전과 응전을 통해 새로운 문명을 창조해 왔다. 이러한 개념은 신학함에 있어서도 역시 중요한 요소들이 된다. 신학함에 있어 도전의 주체는 하나님이며 반응을 보이는 주체는 인간이다. 즉, 도전이 하나님의 영역으로 간주된다면 반응은 인간의 영역이 된다. 순복음신학은 이러한 두 가지의 상관관계적 요소를 신학함의 중요한 요소로 삼는다. 신학은 이처럼 도전하시는 하나님과 이에 응전하는 인간의 관계 속에서 늘 질문을 던지고, 이에 대한 답변을 성서를 통해 안내한다.

‘삶의 신학’은 바로 하나님의 영역과 인간의 영역이 만나는 곳(meeting place)이며 여기서 신학함의 참된 의의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도전은 끊이지 않고 인류에게 계속되지만 그에 대한 반응은 인간의 선택적인 결정에 달려 있다. 하나님

앞에서의 인간의 큰 죄는 하나님의 도전을 외면하는 행위이다. 즉, 이 시간도 하나님의 도전을 수용하지 못하고 묵묵히 서 있는 사람들이 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도전과 응전의 관점에서 가르치는 좋은 예가 된다. “불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여기서 문을 두드리는 그리스도의 도전에 대해 문을 열어 놓는 인간의 적절한 응전이 있을 때 비로소 그리스도와 함께 음식을 나누는 하나님의 역사가 뒤따르게 되는 것이다. 교회를 살펴보면 하나님의 인류에 대한 도전이 어떠한 방법과 형태로 나타났으며 이에 대한 인간의 반응이 어떻게 나타났는지를 가리켜 준다. 신학의 사명을 토인비 식으로 표현한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도전하실 때 인간이 성실한 반응을 보일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네 본토 친척 아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다. 이것은 하나님의 도전이었으며 이 도전에 대한 아브라함의 응전은 순종이었다.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도전하실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좇음”으로 응전했던 것이다. 실로 아브라함에게 인생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새로운 세계가 시작되는 순간이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전하실 때 우리가 어떻게 응전하느냐에 따라 새로운 미래가 펼쳐지기도 하고 그것이 막히게 되기도 하는 것이다.

7장: 영산의 희망과 전인구원의 신학

전인구원과 관련된 질문은 우리의 존재(being)와 실존(existence)을 묻는 궁극적인 질문이며 나아가 하나님 이해의 지름길이 된다. 인간이해는 하나님 이해와 결코 분리되어 다루어 질 수 없는 영역이기에 보다 본질적인 방법을 통한 인식을 요청한다. 여기서 신학적 인간이해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된다. 신학적 인간이해는 이 시대 인간이 '전인적인 존재'(holistic being)가 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며, 어떻게 이러한 전인적인 삶이 가능한 것인가에 대한 질문과 더불어 이에 대한 신학적 응답을 모색한다.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 안에는 여전히 전인적 존재의 삶과는 유리되어 있는 많은 문제들이 쌓여 있다. 영산은이에 대하여 삼중축복을 통한 문제해결의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실제로 오늘날 모든 인류는 허무와 무의미의 문제, 가난과 저주의 문제, 그리고 질병과 죽음의 공포로 말미암아 그 절규가 하늘에 사무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삼박자 구원(삼중축복)입니다.

'전인구원'(holistic salvation)이란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본래적 상태를 내재한다. 인간이 영, 혼, 육의 총체적인 저주로부터 구원받는다라는 점에서 '삼중구원'으로 표시되며 뿐만아니라 본래적이며 또한 구원받은 인간의 모습을 반영하는 포괄적인 개념으로써 '삼중축복'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여기서 '구원'은 헬라어로서 *soteria*라고 하는데 건강(health) 또는 전인성(wholeness)과 같은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

영산이 말하는 삼중축복은 영산의 현장 목회의 경험을 신학적으로 해석한 것으로서

오증복음의 실천적 교리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는 전인구원(holistic salvation)의 개념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나타나고 있다. 하비 콕스(Harvey Cox)는 한국 교회의 오순절적 성향과 관련하여 "축복과 전인성 그리고 신유"(blessing, wholeness and healing)의 세가지 개념을 언급한 바 있는 데 이것은 사실 한국의 오순절 교회의 대표격이 되는 여의도 순복음교회의 삼중축복의 개념을 설명하는 것이다. 삼중축복의 의미는 인간의 타락과 더불어 상실했던 본래적 자화상의 회복(restoration)과 관계한다. 즉 하나님 창조섭리와 목적에 따라 살고자 하는 인간됨의 표현이며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열린 관계의 재개를 뜻한다.

삼중축복은 인간이 영, 혼, 육의 균형잡힌 삶에 대하여 의식적, 무의식적으로 희구하는 가장 본질적인 인간의 욕구(essential human desire)이다. 때문에 인간이해에 있어 삼중축복은 중요한 실마리를 제공한다. 따라서 인간이해를 삼중축복과 연결시켜 봄으로써 이러한 두 관계속에 내재하는 특성들을 살펴 보는 것은 중요하다. 이러한 특성들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정리될 수 있다.

1. 삼중축복은 인간에게 있어 **본래적(intrinsic)**이라는 점이다. 성서는 인류 창조 때로부터 시작해서 택하신 백성들의 삶이 형통과 축복의 삶과 유리되어 있지 않음을 보여 주고 있다. 인간이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함을 받았다는 사실은 그 자체가 인간에게 부여된 본래적 축복이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후 최초로 명하신 것이 바로 복(blessing)이었다. 따라서 삼중축복은 인간이 땅에 거하는 동안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공통의 관심사가 아닐 수 없다. 이처럼 사람이 복을 추구하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자기 정체성의 표현이요 인간이해의 핵심적 요인이 된다.

2. 삼중축복은 인간과 관계하는 하나님, 이웃 그리고 이 세상과 **관계적(relational)**인 특성을 지니고 있다. 성서는 축복의 개념을 인간 자신과 하나님 그리고 이웃과 세상과의 올바른 관계성속에서 형성되는 것임을 가르친다. 무엇보다도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는 저주가 아닌 복의 관계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유지될 때 그 영향은 이웃과 생태계의 축복으로까지 연결되고 있음을 본다. 바로 복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측량할 수 있는 척도(barometer)이며 하나님과 관계하는 '복'이야말로 인간의 존재의미를 잘 설명할 수 있는 중요한 개념이 된다.

3. 삼중축복은 **조건적(conditional)**이며 **보상적(compensational)**인 특징이 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약속이나 율법, 명령에 순종하고 이를 성실히 준행해야 하는 조건적인 측면과 이에 대한 보상으로 주어지는 보상적 측면이 동시에 관계한다.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도전하실 때(challenge) 이에 대한 올바른 응전(response)은 필수적이며 이러한 과정속에서 인류에게 복이 수여된다.

4. 삼중축복은 인간이해에 있어 **포괄적(inclusive)**이며 **통전적(holistic)**인 차원이 얼마나 중요한 것임을 가르친다. 무엇보다도 삼중축복은 영혼과 범사와 육의 영역에 동시에적으로 관여한다. 축복은 내적이며 동시에 외적이며, 초월적이며 역사적이고, 신성적이며 인성적인 개념을 통합적으로 포괄한다. 따라서 축복은 인간의 삶 그 자체이며, 생활의 중심이 된다. 따라서 이분법적(dichotomous)이거나 이원론적(dualistic) 성향은 삼중축복의 본래적 의미와는 관계가 멀다.

5. 삼중축복은 **선택적(selective)**이고 **의지적(intentional)**이다. 결국 복은 인간이

선택함으로써 얻어지는 것이며 복을 수여받기를 희망하는 사람의 의지적이고 적극적인 자기 표현이 있어야 한다. 삼중축복은 인간에게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 결코 아니다. 그 복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라는 신적인 측면이 있지만 인간이 얼마나 최선을 다 해 그 복을 소원하는가라는 인성적 측면을 요구한다.

6. 삼중축복은 **공동체적(communal)**이며 **확산적(extensional)**이다. 성서가 제시하는 복은 이기적이거나 배타적이지 않다. 그 복은 한 개인으로부터 시작해서 궁극적으로는 공동체와 더불어 함께 공유할 것을 교훈한다. 즉 더 넓은 영역으로 그 복의 수혜 대상자들이 확산되어야 함을 가르친다.

7. 삼중축복은 **성령론적(pneumatological)**이며 **경험적(experiential)**이다. 인간이해의 중요한 측면은 바로 성령이 인간 삶에 임재하는 것이며 이것을 경험하는 것과 관계한다. 따라서 삼중축복은 교회와 이웃을 위해 능력있게 성령의 은사를 활용하는 일체의 사역과 연관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축복은 다름 아닌 오늘날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이다.

8. 삼중축복은 **역설적(paradoxical)**인 데 있다. 예수 그리스도는 역설적인 진리(the paradoxical truth)를 통해 모순통합의 신비를 가르치셨다. 그 축복은 성육신에서 나타나고 자유자와 종이라는 관계속에서 나타나는 역설적 긴장관계속에서 얻게 되는 신비이다. 때문에 물질이라는 이해관계를 초월하여 본래적인 신앙의 측면을 추구할 때 나타나는 역설적인 삼중축복의 가능성을 접하게 된다. 따라서 삼중축복에 이르는 과정에는 반드시 우선순위 문제가 대두 된다. 이것은 우리의 영혼과 관련된 보다 본질적 신앙의 문제가 우선될 때 자연적으로 범사와 육신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측면을 말한다. 즉, 삼중축복은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인간이 되심으로 나타나는 역설적인 구원의 능력이며 인간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낮아지고 겸비해 짐으로써 얻어지는 역설적인 축복이다.

삼중축복이 인간이해와 관련되어 내재하는 중요한 신학적 특성은 부분적(partical)이기 보다는 통전적(holistic)이며 제한적(limited)이기 보다는 포괄적(inclusive)이다. 또한 사변적 (speculative)이기 보다 실제적(practical)이며, 정적(static)이기 보다는 역동적(dynamic)이며 이론적(theoretic)이기 보다는 경험적(experiential)인데 있다. 때문에 이러한 삼중축복이 지닌 특성은 순복음운동으로까지 연결되어 놀라운 교회성장의 열매를 맺을 수 있었다.

영산은 과거의 낡은 틀만을 답습하면서 사회로 하여금 교회 안에 들어오라는 극히 힘없고 제한된 외침이 현대인에게 미칠 부정적 영향을 인식하고 있다. 즉, 조용기목사는 복음(text)을 변화하는 시대 정황(context)에 맞추어 올바르게 해석해 줌으로써 인류에게 희망과 꿈을 주는 해석학적 가능성을 강조한다. 기독교의 출현은 율법과 전통 그리고 관습으로 굳어진 유대의식으로 부터의 일종의 사고의 전환(paradigm shift)에 기인한다. 영산에게 있어 '삼중축복' 역시 '사고의 전환'을 이끄는 그의 신학적 중심 가치체계이다. 그것은 바로 복음의 관점에서 삶의 정황을 분석하고 여기서 얻어진 분광(spectrum)을 실제적 삶에 적용하면서 '전인구원'으로 이끄는 그의 통전적 의식에 기초한다.

영산이 강조하는 삼중축복은 인간의 영혼과 범사, 육의 균형있는 성숙(maturity)을 안내하는 가시적, 비가시적 하나님의 은혜(visible and invisible God's grace)이다. 그것은 단순히 종말론적으로 다가올 하나님 나라에서만 누리게 될 축복이 아니라 바로 지금 여기라는 현재적 하나님 나라 안에서 경험할 수 있는 축복이기도 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삼중축복과 인간이해의 관계성은 바로 진리의 비가시적 실체(invisible reality)를 가시적 실체(visible reality)로, 역으로 진리의 가시적 실체를 비가시적 실체로 변혁하는 힘(transforming power)에 있다. 따라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에 감사하여 종말론적으로 완성될 그 나라를 목표로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가 더욱 확장되기 위하여 수고하고 헌신하여야 할 책임과 의무가 뒤따른다.

지금까지 신학계에서는 축복의 개념을 신학화함에 대해 부정적이었을 뿐만 아니라 이를 다루는 것 자체를 꺼려해 왔다. 복의 개념이 기독교의 중요한 관심적 주제임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무시되었던 이유는 그 복을 비기독교적 복과 동일시한 그릇된 결과에 기인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한국 교회 내에 만연하고 있는 성공지향주의, 배금주의는 성서적 복과는 반드시 구별되어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영산이 이해하는 축복은 축복 그자체가 목적이 아닌 인간을 전인구원으로 이끄는 수단이라는 점이다. 궁극적으로 영산은 진정한 축복은 다른 무엇보다도 '좋은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라고 이해한다. 다시 말해 복이 인간을 전인구원으로 안내하지 못하고 궁극적으로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축복이기 보다는 저주가 될 수 있다는 점이다.

8장: 영산의 희망과 오순절 경험의 신학

본래 기독교의 교리는 사변적 추론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신앙의 구체적 경험에 의한 것이다. 오순절주의의 가장 뚜렷한 표식(distinctive mark)은 방언을 말하는 데(speaking in tongues) 있다. 방언 역시 살아계신 성령의 실재(existence)를 언어적으로 경험하는 신앙적 사건이다. 오순절적 경험이란 과거 오순절 사건에서 그랬던 것처럼 성령께서 현재적이며 살아계신 분으로서 삶 속에서 거룩한 일을 도모하심을 인간의 지, 정, 의를 통하여 감각하는 것을 의미한다. 사도 요한은 생명의 말씀과 관련한 경험의 한 예를 들어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요”고 고백하면서 경험의 '청각적'(audible)이고 '시각적'(visual)이며 그리고 '감각적'(sensual)인 차원을 언급하고 있다. 앤더슨(Gordon L. Anderson)에 의하면 오순절주의자들은 “말이나 이론적인 이해보다는 느끼고 행하는 종교적 경험을 원한다.” 왜커(Grant Wacker)는 오순절주의의 존재 방식과 관련해서 “오랜 기간에 걸쳐 오순절주의는 일종의 총체적인 생활 양식이요, 실재를 보고 느끼고 경험하는 방식으로서 존재해 왔다”라고 말하면서 경험이 그들에게 있어 중요한 영역이 되고 있음을 강조한다. 오순절적 경험은 성령께서 지금, 여기(here and now)라는 상황에서 우리로 하여금 거듭나게 하시고, 성결하게 하시며, 복음의 증인되게 하시는 사역을 현재 진행하고 계심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방언은 성령의 임재하심과 능력 부여주심을 경험하게 하는 하나의 관문으로서 성도로 하여금 능력 있게 하나님의 증인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중요한 해석학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 하겠다. 오순절주의의 가치체계는 주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특성으로 나타난다.

I. 계속성(continuity)

오순절의 가치체계는 마가 다락방에 임했던 강한 오순절 성령의 역사는 시대와 장소를 초월하여 현대에도 다양한 형태로 계속된다는 성령 역사의

계속성(continuity)에 있다. 물론 오순절사건은 시간과 공간의 차원에서 이루어진 단회적이고도 유일한 사건(the unique event)이라는 특성을 내재한다. 때문에 이 사건은 역사성을 반영한다. 그러나 이러한 오순절 성령임재의 사건은 단회적이며 유일한 사건으로 역사에서 종식된 사건이기보다는 이 시대에 이르기까지 성령임재를 사모하는 자들에게 보편적 사건(the universal events)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부여한다. 여기에 오순절 사건의 단회성과 연속성이라는 문제가 대두된다. 여기서 단회성이라는 말은 오순절사건이 지니고, 있는 개체적이며 유일한 독특한 특성을 함축한다. 반면 연속성이라는 말은 제2, 제3의 오순절 사건들은 시대와 공간 그리고 문화를 초월하여 계속해서 이 시대에도 영향력을 끼치면서 계속되고 있음을 말한다. 이처럼 오순절 사건은 ‘유일의 사건’에서 ‘보편적 사건’으로 날마다 새롭게 변화하고 갱신되어야 하는 전이적 특성(transitional nature)을 지니고 있다. 이는 곧 오순절 전통은 결코 과거에 머무르기보다는 과거를 교훈 삼아 날마다 갱신(renewal)과 변화(change)를 추구하여 그 시대 사람들에게 도전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성령의 역사를 간절히 사모하는 자들에게 사도행전 2장에서 나타났던 ‘오순절 사건’은 현재에 “또 다른 오순절 사건”의 형태와 모양으로 나타날 수 있다. 그러나 이와는 달리 오순절사건을 설명함에 있어 성령의 역사를 몇 가지 특수성 속에 제한함으로써 되풀이 될 수 없고 계속될 수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이러한 입장에 대해 메릴 옹거(Merrill Unger)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그 사건은 특별한 때(행2: 1) 특별한 장소에서(행1: 13-14) 새로운 질서를 가져오는 특별한 목적을 위해(고전12: 12-20) 특별한 구약적 유형의 성취 가운데서(레23: 15-22) 일어났다. 그 사건은 한번 시작된 새로운 질서를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일어나게 할 성격의 것이 아니었다.

오순절주의자들은 초대교회의 사도행전적 성령의 역사를 오순절운동의 모범적 모형으로 삼는다. 그러나 오순절주의자들은 초대교회 오순절사건 당시의 특별한 상황 속에서 제한하는 것을 반대한다. 다시 말해 당시의 성령의 역사와 이 시대 성령의 역사와의 단절(discontinuity)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이다. 성령의 사역은 특별한 것임에는 분명하다. 그러나 그 성령사역이 특별한 것은 그 적용 시기나 대상에 있어 제한성에 있지 않다. 오순절주의자들은 오순절사건을 해석함에 있어 당시에 국한한 특수성만을 강조하지 않는다. 이들은 성서를 단순히 과거의 사건을 회고하게 하는 역사책으로만 이해하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성서에 기록된 사건들을 단순히 성서시대의 사건으로만 국한해서 이해하지도 않는다. 이들은 과거에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the written Word)을 현재적으로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the living Word)으로도 이해한다. 그래서 그 말씀이 살아 역동적인 영향력을 제공하는 능력으로 믿는다. 따라서 마가 다락방의 오순절 성령의 역사는 이 시간, 이 자리(here and now)에서도 다양한 형태와 모양으로 역사될 수 있음을 주장한다. 성령은 시대와 지역, 문화 등을 초월해서 현재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마치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것처럼 성령을 통한 오순절적 역사는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나타난다고 믿는다.

II. 구별성(Distinction)

오순절의 가치체계는 중생(born again)과 성령세례(the baptism of the Holy Spirit)의 구별성(distinction)을 강조하는 데 있다. 성령세례는 중생 후에 경험하는 신적 임재의 체험으로서 초자연적, 가시적 현상을 동반하며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게 함으로써 보다 능력 있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하는 사건이다. 때문에 누가는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성령세례에 대한 예언적 신탁을 다가올 오순절 사건의 중요한 요소로 소개하고 있다. 성령세례는 오순절주의자들을 복음주의자들과 구분 짓는 요인이며 또한 그리스도인들의 성령체험 유무를 확인하는 중요한 요소이기도 하다. 따라서 성령세례는 오순절주의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가장 두드러진 요소이다. 성령세례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가능케 하는 사건으로서 능력 체험을 통한 하나님 나라 확장에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이러한 관점에서 중생은 성령세례 체험의 선결조건(precondition)이 됨을 알 수 있다. 물론 중생과 성령세례의 체험이 동시에 있을 수도 있지만 이 두 가지는 분명히 다른 체험이다. 즉 성령세례는 그 기본적인 중생의 역사에 한 걸음 더 전진하여 일어나는 하나님 은혜의 두 번째 역사로서 중생의 또 다른 축복이라고 할 수 있다. 여하튼 우리는 성령세례를 중생과 동의어로 사용할 수 없다.

성령세례와 중생과 관련하여 토레이(R. A. Torrey) 박사는 고린도전서 12장 13절을 인용하면서 모든 성도는 잠정적으로 성령세례를 받았다고 해석한다. 그러나 그는 잠정적이란 표현을 통해 중생과 성령세례의 차별성을 말한다. 즉, 토레이는 모든 사람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안에서 잠정적으로 의롭다함을 입었다고 한다. 즉, 중생은 그들을 위해 제공되어 있고 그들에게 속해있으나(롬5:18), 잠정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속해있는 그것을 믿음으로 자기의 것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즉, 그는 중생을 가리켜 잠정적인 성령세례의 단계로 보고 있으며 따라서 진정한 성령세례로 나아가야 할 것을 가르치고 있다. 성령 세례는 일단 중생하고 차후에 경험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성령 세례는 전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비신자에게 임하는 것이 아니고 일단 중생의 단계에 들어선 성도에게 주어진다. 결국 오순절 전통은 의식의 집행 자체가 구원의 능력(saving power)을 나타낸다고 보지는 않는다. 이를 통해 깨달을 수 있는 사실은 모든 성도에게는 중생의 경험이 있을 후 그들의 삶에 성령이 내주 하시지만, 여전히 성령세례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이다. 오순절주의자들은 성령세례를 중생과 구분하여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는 새로운 차원의 영적 세계로 보고 있다. 성령에 관한 한 중생의 경우 비 체험적일 수 있으나 성령세례는 체험적이며 성령의 능력적 임재라고 말할 수 있다. 즉, 중생이 새 생명을 얻어 변화된 신분의 단계라고 한다면, 성령세례는 사역을 위해 하나님의 권능을 받는 체험이다. 그리스도께서는 승천하시기 전 제자들에게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기다리라고 하심으로써 성령세례는 능력을 얻어 복음증거에 연결되는 내 외적 변화를 유도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성령세례’를 가리켜 D. E. 하렐은 ‘오순절주의’의 보증서라고 언급하고 있을 정도이다. 때문에 오순절주의자들은 개인의 삶 가운데 성령세례나 충만을 경험할 것을 강조한다. 성령세례는 기독교인들을 진정한 신앙생활로 이끄는 안내자이다. 이 운동은 신학적 지식의 탐구나 논쟁보다는 실제적인 성령의 역사와 은사운동에 관심을 쏟는 것이다.

III. 후속성(Subsequence)

오순절의 가치체계는 방언을 성령 세례를 체험하고 난 후에 나타나는 초기 외적 증거(initial physical evidence)로 보는 후속성(subsequence)에 있다. 방언은 인간이 터득하고 훈련해서 말한 언어가 아닌 성령의 능력 하에서 열려진 언어라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미하엘 벨커(Michael Welker)는 바로 오순절사건의 핵심을 “언어 및 청취의 기적”으로 묘사했다. 오순절 성령임재의 사건은 다른 어느 부분 보다 인간의 언어를 장악하여 나타났던 사건이었다. 때문에 오순절사건은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의사소통의 회복’이라는 상징적 의미(symbolic meaning)를 지니고 있다. 이러한 ‘다른 방언’은 ‘인간과 인간과의 대화의 통로’로서 오순절 사건에서만 유일하게 발견된다. 즉, 사도행전 2장 4절에서 말하는 ‘다른 방언’(xenolalia)은 오순절사건의 특성을 규정짓는 중요한 경험인 바 이는 사도행전의 다른 본문에서 나오는 ‘일반적인 방언’(glossolalia) 또는 바울이 고린도교인들에게 말하는 방언과는 구별이 되는 것이다. 우리는 여기서 인간이 알아들을 수 있는 다른 방언이 결국 하나님과의 영적 언어로서 발전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래서 방언은 ‘하나님과 인간과의 대화의 통로’가 되었다. 때문에 고든 앤더슨(Gordon L. Anderson)은 이 방언을 가리켜 ‘기도 언어’(prayer language)라고 하기도 했다. 오순절사건의 ‘다른 방언’은 결국 인간간의 대화의 차원을 넘어 하나님과의 대화의 차원에서 사용되는 일반 방언으로 연결되며 이와 더불어 방언 통역이 은사로서 강조되고 있음을 보게 된다. 하지만 아직까지 성령세례 체험의 최초의 가시적 표적으로서 방언을 말함에 신학적으로 이견이 분분해 왔던 것이 사실이다.

A. 언어의 중요성에 대한 전 이해: 언어는 구원과 믿음을 전달하는 매체

방언은 신적 언어로서 성령의 임재하심을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도구가 된다. 따라서 방언은 단순히 외적 언어현상이 아닌 믿음의 세계를 표현하는 영적 차원으로 이해함이 중요하다. 윌리엄스(R. Williams)는 방언이 '인간의 영'과 '하나님의 영'을 연결시켜 준다고 말한다. 즉, 하나님의 영이 인간의 영 아래서 그리고 그 영을 통해서 초월적인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음을 말하는 것이다. 즉, 방언에는 하나님의 '감추어진 일들'이라고 할 수 있는 비밀이 있다. 이와 관련하여 바울은 언어의 사용과 구원의 문제를 연결시켜 이해하고 있다. 그 예로써 바울은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고 말하고 있다. 여기서 “입으로 시인하여”란 언어의 기능적 역할을 의미한다. 이러한 언어의 역할은 단순한 의사전달의 차원을 넘어 영적 차원의 세계를 보여 준다. 또한 바울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고 함으로써 언어를 영적 믿음의 차원으로 이해하고 있다. 다시 말해 믿음은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지만 여기서 믿음의 고백을 표현해 내는 방편은 인간의 언어라는 것이다. 곧 언어는 구원의 도구(a tool for salvation)가 된다. 이처럼 언어는 중요한 신학적 함축성을 지니고 있다. 윌리엄스(R. Williams)는 방언을 종말론적(eschatological) 표현이라고 언급하면서 방언이 지닌 영적 측면을 강조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방언'이야 말로 하나님과의 최상급의 교제라고 말한다. 여기서 우리가 인식해야 할 것은 하나님 나라의 특성은 언어가 가진 한계점을 인정한다는 것이다. 즉,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다"(고전4:20)고 말하면서 언어의 차원은 하나님의 영적 능력의 차원으로 이전되어야 할 것을 강조한다.

B. 방언에 나타난 강조사항과 주의사항: 바울의 통전적 방언 이해

바울은 고린도전서를 통해 방언에 관한 자신의 신학적 견해를 밝히고 있다. '사랑'을 많이 강조하면서 보다 실제적으로는 '방언'에 대해 더 많은 지면을 할애하고 있음은 단지 역설이라고만 말할 수 없다. 방언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강조해 온 신학자들은 그 성서적 근거를 고린도전서에서 찾는다. 그러나 성서의 본문을 보다 자세히 살펴보면 방언에 대한 바울의 입장과 이해는 이에 대해 비판적인 신학자의 관점과 사뭇 동떨어져 있음을 알 수 있다. 바울은 방언을 이해함에 있어 통전적 관점(holistic perspective)을 취하고 있다. 그렇게 말 할 수 있는 근거로서 바울은 방언에 관해 언급할 때 '강조사항'과 '주의사항'을 동시에 언급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두 가지 사항에 있어 바울은 치우침이 없다. 유익만을 말하는 것도 아니며 그렇다고 금기시하지도 않는다. 그것은 방언이 신학적으로도 얼마나 중요한 주제가 되는 가를 간접적으로 시사해 준다. 고린도전서 14장 5절에서 바울은 먼저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라고 말하면서 방언에 대한 '강조사항'을 부각시키면서 이에 추가하여 "방언을 말하는 자가 만일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통역하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라고 '주의사항'을 동시에 언급하고 있다. 바울은 뒷 부분에서 방언에 관한 주의사항을 말하면서 방언 무용론을 주장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 오히려 바울은 예언의 은사를 언급함으로써 방언의 의의를 보충하고 보완하고자 했던 것이다.

또 하나 방언에 관한 바울의 통전적 입장을 제시하고 있는 본문이 고린도전서 14장 18절과 19절이다. 여기서 바울은 "내가 너희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하므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고 방언에 대한 긍정적 측면을 말했다. 이어 19절에서 "그러나 교회에서 네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다섯 마디 말을 하는 것이 일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고 말함으로 방언에 대한 주의사항을 가르쳤다. 여기에서도 바울은 방언에 관한 주의사항을 금기시하는 개념으로 보지 않았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오히려 우리는 바울이 방언을 언급하면서 교회 내의 불신자들이나 믿음이 약한 자들을 배려하고자 했던 것을 알 수 있다. 바울은 주의사항을 통해 방언을 금지하려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방언이 신앙생활 가운데 차지하는 큰 유익을 설명하려 했던 것이다. 바울은 이처럼 방언에 관해 '강조사항'과 '주의사항'을 동시에 언급함으로써의 방언이해에 관한 통전적 접근을 피하고자 했음을 알 수 있다.

C. 인격적 성령의 인격적 표현으로서의 방언: 몰트만의 오순절주의적 진술

성령의 은사와 능력의 체험은 철저히 성령과의 인격적 관계를 통해 나타난다. 오순절 임하신 성령은 단순한 에너지(energy)나 능력처럼 비인격적으로 이해될 수 없다. 왜냐하면 성령은 지, 정, 의를 지니신 인격적인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순복음신앙에서 가장 인상적인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성령님을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라는 신앙적 고백에서 발견된다. 이러한 고백은 순복음신앙이 '성령의 인격성'에 대해 얼마나 실천적으로 신앙생활에 적용하고 있는가를 보여 주는 사례가 된다. 성령의 인격성은 우리로 하여금 성령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제공하는 중요한 신학적 단서가 된다. 성령은 '인격적인 신'이다. 중요한 점은 인격적 성령께서 허락하시는 언어인 방언 역시 인격적이라는 데 있다. 이와 관련해서 몰트만(J. Moltmann)은 다음과 같이 진술하고 있다.

강한 성령 체험이 말문이 막힌 사람들의 혀를 풀어놓고 성령의 역사하는 대로 이 체험을 표현하기 시작하는 것을 나는 방언이라고 생각한다. 이것은 우선 당사자들에게 큰 의미가 있고 그 다음으로는 온 공동체에 큰 의미가 있다. 이것은 인격적인 성령체험의 인격적인 표현이고, 당사자들을

향상시킨다. 그리고 이것은 성령체험의 새로운 표현이다. 적절히 표현될 수 없는 체험은 진정한 체험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늘 명심해야 한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몰트만은 방언을 말하는 것과 관련하여 오순절주의자들이 주장하는 신학적 입장을 다음과 같이 몇 가지 측면에서 폭넓게 지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첫째로, 방언은 성령세례 체험 후에 나타난다는 ‘후속성’(subsequence)에 대한 공통된 인식이다. 둘째로, 방언에 대한 유익성을 개인과 공동체의 차원에서 강조하고 있다는 점이다. 셋째로는, 방언은 인격적인 성령을 체험하는 인격적인 사건이라는 점이다. 넷째로, 성령체험에 대한 강조이다. 특별히 여기서 우리는 방언이 “인격적인 성령체험의 인격적 표현”이라는 점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어빈(H.. M. Ervin) 역시 방언을 말하는 것을 가리켜 “성령 인격의 현현”이라고 말한다. 이를 통해 우리는 방언이 단순한 언어적 현상이기 보다는 성령과의 인격적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D. 방언과 관련된 성서의 두 가지 언어적 사건: 바벨탑사건과 오순절 사건의 비교

언어는 인간의 실존을 표현해 내는 중요한 도구가 된다. 신적 언어(divine language)로서 방언 역시 의사소통이라는 기능적 차원을 넘어 하나님 앞에서의 인간의 존재 의미를 규명하는 실존적 차원으로까지 연결된다. 하나님께서 죄진 아담을 향해 “네가 어디 있느냐?”고 물으신 것은 곧 인간의 실존적 문제를 유념하신 것이다. 이에 아담은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라고 대답했다. 이는 곧 죄로 인해 두려움을 느끼는 자신의 현재적 실존을 표현한 답이다. 언어는 이처럼 인간의 실존적 삶의 세계를 규정한다. 언어는 인간 존재의 증거이며 때문에 언어가 인간의 삶의 영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크다. 인간에게 있어 언어의 사용은 다른 여타 피조물과 구별되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 모든 인류에게는 이와 같은 언어사용의 권리가 주어진다. 인류는 바로 이 언어의 사용을 통해 자신의 실존적 존재의 의미를 깨닫게 된다. 성서에는 바벨탑 사건과 오순절 사건으로 대별되는 언어적 사건이 있다. 여기서 전자가 인간의 언어적(human language) 차원에서 다루어 졌다면, 후자는 신적 언어(divine language)의 차원에서 다루어 졌다는 차이가 있다.

두 언어적 사건에 나타나는 의미들을 비교해 보면, 먼저는 바벨탑 사건으로 인해 인류의 언어가 혼잡해 지자 사람과의 ‘의사소통’의 단절이 초래되면서 인류는 타락된 실존을 경험하게 된다. 그러나 오순절 사건에서 인류는 방언을 통해 ‘의사소통’이 재개되면서 그들은 새로운 영적 존재자의 차원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계기를 맞는다. 성령께서는 오순절 사건을 통해 인류가 영적 차원을 달리 하는 새로운 존재자들이 될 수 있는 근거로서 새로운 언어, 영의 언어인 방언을 허락하셨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언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기울이고 계신다. 또한 바벨탑 사건이 인본주의적 사건으로서 인류 타락의 모형이 된다면 오순절사건은 전적인 하나님의 신적 사건으로서 인류 회복의 상징적 모형이 된다.

또한 바벨탑사건이 인류를 절망으로 안내했다면 오순절사건은 인류를 희망으로 안내했다. 오순절사건은 방언을 통해 과거에 있었던 언어적 사건과의 차별성을 보여 주었다. 방언은 인류에게 새로운 삶의 지평이 열려짐을 보여 준 것이다. 곧 성령을 통한 새 시대의 개막과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총체적으로 의미한다. 오순절사건의 방언은 인간의 자의적인 언어가 아닌 성령께서 친히 말하게 하심을 따라 이루어진 언어이다. 따라서 방언은 하나님께서 보다 인류의 삶 속에 직접적으로 간섭하신다는 하나님의

의지의 표명인 것이다.

9장: 영산의 희망과 좋으신 하나님 신학

영산의 목회철학과 신학사상을 한 눈에 엿보게 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좋으신 하나님' 신학이다. '좋으신 하나님' 신학은 그로 하여금 '희망의 목회'를 이끌고 '희망의 신학'을 선포하게 하였다. 그것은 영산이 자신의 신학세계를 펼쳐 나가게 하는 도구였으며, 그의 중요한 신학적 사유의 기초가 되기도 하였다. 그의 '좋으신 하나님' 신학에는 다양한 희망의 특성들이 내재되어 있다. 하나님은 우리 삶의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시며, 우리의 육신을 치료하신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이시라는 점이다. 그의 '좋으신 하나님' 사상에 기초를 둔 '희망신학'에는 다음과 같은 신학적 요소들이 있다.

I. 두려움과 속박으로부터의 해방 (Freedom)

영산이 주도해 왔던 '좋으신 하나님' 신학은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기존의 인식의 전환을 꾀하는 획기적인 것이었다. 그의 '좋으신 하나님' 인식은 이전의 종교였던 불교와는 다른 것이었다.

19살 때까지 나는 독실한 불교신자였다. 내가 절에 갔을 때마다 나는 항상 그 불상들에게 두려움을 느꼈다. 부처에게 나를 벌하지 말 것을 구했다. 불교와 나의 관계는 두려움에 뿌리를 두고 있었고 의식주의와 책임에 기초를 두고 있었다. 나의 종교심은 사랑이 아니라 두려움에서 태어났다.

불교에서 느꼈던 '두려움의 종교'에 대한 인식은 영산이 기독교 신앙에 귀의하면서 '희망의 종교'로 바뀌었다. 그것은 사망과 마귀의 속박으로부터의 해방을 의미한다. 그가 인식하게 된 하나님은 자신의 폐결핵을 치료하셔서 죽음에서 생명으로 인도하신 '치료의 하나님'이었고, 자신의 영혼까지도 구원으로 인도하신 '구원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었다. 그는 이와 같은 신앙체험을 바탕으로 '좋으신 하나님'을 외쳤던 것이다. 그러나 영산이 교회를 개척하고 말씀을 전했던 50년대 말, 60년대 한국교회의 상황은 그가 불교에서 경험했던 '두려움의 종교'와 별반 차이가 없었다. 다시 말해 전통적 신학에서는 하나님과 인간과의 차이점을 강조하였기에 하나님과의 거리감이 무의식적으로 상존하고 있었던 것이다.

II. 하나님의 은혜 (Grace)

전통적인 한국교회의 강단은 엄숙하고, 근엄했다. 게다가 목사들의 설교는 마음의 쉽고 평안을 얻기 위해 교회를 찾는 자들에게 도덕적, 율법적 일변도의 설교로 그들을 주눅 들게 만들기에 충분했다. 이와 같은 한국교회 강단의 분위기에 대하여 서정민 교수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한국교회의 강단은 교리 설교를 중심한 제목 설교였고, 내용도 도덕적 삶에 대한 강조가 주를 이루었다. 결국 도덕적 설교를 강조하다보면 당연히 도덕적이지 않은

삶에 대해 정죄가 가해질 뿐이었고, 그것은 어느 누구나 도덕적 완벽을 기할 수 없는 이상, 상처를 받게 되는 요인이 될 수도 있었다.

서정민 교수는 교회에서 은혜를 받기 보다는 오히려 상처를 받는 역설적 한국교회 강단 문화의 문제점을 잘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영산의 설교는 하나님을 자비로운 아버지로 소개시켜 친밀성을 유도했다. ‘좋은 하나님’ 신학에 근거한 영산의 설교는 삶에 지치고 피곤한 현대인들에게 희망을 주고 용기를 주기에 충분했다. 서정민 교수는 한국교회의 상황에서 이와 같은 영산의 설교를 가리켜 “한국교회를 강타한 일대의 혁명”이라고까지 표현했다. 목회자들이 교회를 찾는 자들에게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설교를 하는 것도 중요하다. 하지만, 영산에게 있어 더 중요한 것은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함으로써 희망을 주는 것이었다.

III. ‘공의’와 ‘사랑’ (Righteousness and Love)

영산이 이해하는 ‘좋은 하나님’은 하나님 속성의 양면을 함의하고 있다. 여기서 하나님 안의 ‘공의’와 ‘사랑’의 속성은 대립적 관계에 있지 않다. 오히려 이러한 하나님의 두 속성인 공의와 사랑은 조화를 이룬다. 이와 같은 연관성에서 볼 때 ‘좋은 하나님’ 신학은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의 속성을 동시에 반영하는 통전적인 신학인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그는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물론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잘못된 길을 갈 때에는 사랑의 채찍을 드십니다(히12:5-13).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심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구원하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좋은 하나님이십니다(겔37:23)

영산이 이해하는 ‘좋은 하나님’이란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사랑의 속성만을 보여줌으로써 어리석은 성도들을 양산하는 하나님과는 다른 것이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하시는 것이다. 따라서 하나님은 두려움의 하나님이 아닌 것이다. 징계는 인간이 원하는 것은 아니지만 인간을 성숙하게 만든다는 점에서 좋은 것일 수도 있다. ‘좋은 하나님’ 신학은 하나님 속성의 양면 모두를 강조한다. 따라서 ‘좋은 하나님’ 신학 안에는 ‘채찍’과 ‘사랑’이 공존하는 통전적 하나님의 속성이 내재되어 있는 것이다.

IV. 축복(Blessings)

축복은 하나님의 가시적 은혜로서 교회는 그 축복을 통해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누구시며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위해 어떤 일을 하셨는가를 가르치게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교회들이 축복에 대한 올바른 성서적 이해가 없어 그것을 가르치기를 꺼려하고 있다. 하나님의 백성이 축복을 받는다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왜냐하면 축복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진정한 희망이 무엇을 의미하는 지를 안내해 주기 때문이다. 따라서 성서가 가르치는 축복에 대해서 교회의 깊이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영산의 ‘희망신학’은 ‘좋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축복’을 약속하시는 관계성 안에서 해석될 수 있다. 결국 희망은 ‘좋은 하나님’으로부터의 축복의 약속인 것이다. 이러한 것을 고려해 볼 때, 축복은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에게 사랑을 표현하시는 하나의

매체인 것이다. 지금까지 교회는 축복이 신학의 주제로 등장하는 것 자체에 대해 꺼려해 왔다. 뿐만 아니라 그 문제를 다루는 것조차도 부정적인 자세를 보여 왔다. 그렇게 된 이유는 그 축복을 타종교에서 이해하는 복과 동일시한 그릇된 결과에 기인한다. 따라서 한국 교회 내에 만연하고 있는 이기적 성공과 배금주의를 이끄는 세속적인 복은 성서적 복과는 반드시 구별되어야 한다. 영산이 이해하는 축복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안내하는 수단이라는 점이다. 하지만 축복이 사람을 사악한 길로 안내한다면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되는 것이다.

V. 신유(Divine Healing)

하나님의 성회 신조는 미국 하나님의 성회 신조 16조를 요약한 것으로 다음과 같은 것이었다. 그 중 일곱 번째에는 “우리는 십자가상의 그리스도의 구속사업을 믿는 자들의 기도를 응답하여 우리 육신의 병을 치료하여 주심을 믿는다”.

순복음신앙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결과로 주어진 영혼의 구원뿐만 아니라 육체의 질병으로부터의 치료와 생활의 저주로부터의 해방을 모두 포함하는 전인적인 구원의 복음을 강조하는 순수한 복음주의 신앙”이라면 순복음운동은 “오순절적 성령의 역사와 더불어 순복음에서 강조하는 오중복음과 삼중축복의 전인적 구원의 개념이 어우러져 한국교회에 큰 영향력을 미치며 나타난 운동”이라고 할 수 있다.

3부: 적용 (Application)

우리는 지금까지 본 강의를 진행하면서 1부에서는 어떤 관점(perspective)에서 신학을 해야 할지를, 그리고 2부에서는 그 관점을 떠받칠 수 있는 구조(structure)가 무엇인지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과제는 지금까지 배운 것들을 가지고 어떻게 적용(application)해야 할지를 고민해 보는 것이다. 우리가 영산의 신학과 4차원의 영성을 배우는 목적도 결국은 적용에 있다. 우리는 여기서 ‘해석학적 순환’(hermeneutic circulation)에 대해 생각해 보게 된다.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그 말씀을 주석하고(exegesis), 해석하며(hermeneutics) 신학화(theology) 하는 과정을 계속해서 이어가야 한다. 주석을 통해 말씀을 분석한다면, 해석을 통해 의미를 부여하고, 신학을 통해서만 생명을 붙여 넣는 적용이 있게 된다. 이것은 신학의 과정 속에서 늘 순환 되어야 하는 것이다. 여기서 적용은 신학이 다만 탁상공론의 장이 아님을 밝히는 것이다. 삶의 자리 속에서 신학이 어떻게 말씀대로 작용하는가를 보는 것이다. 영산의 신학은 지금까지 살펴본 것들을 하나로 꿰어 연결시켜 주는 도구가 있다. 바로 4차원의 영성이다. 3부는 4차원의 영성을 통해 본 강의가 결론적으로 지향하고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를 보게 할 것이다.

10장: 영산의 희망과 4차원의 영성

우리의 인생은 제한된 삶이다. 시공간의 제약아래 사는 3차원의 인생이다. 그러나 이것이 전부다 아니다. 성경은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되지 않았다”(히11:3)라고 가르치고 있다. 4차원은 신앙적으로 말하면 영적인 세계이며, 인간은 영혼을 가진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3차원의 세계에 있으면서도 4차원의 세계에 속하는 존재인 것이다.

그런데 오늘날 개인이나 사회나 가정이나 모든 곳에 사단이 역사함으로 사람들을 혼돈하게, 공허하게, 그리고 흑암의 깊음 위에 있게 만든다. 이 세상은 성령과 사단의 투쟁의 장소다. 우리가 만일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외면한 채 인간적인 입씨름과 싸움에 걸려들게 되면, 우리는 패배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세상은 3차원의 세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육적인 싸움을 하게 되면 악의 세력을 이길 수 없기 때문이다. 결국 우리의 대응방식이 달라져야 한다. 기독교세계관은 다만 윤리, 도덕적 개념을 주입하는 것이어서는 안된다. 기독교세계관은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영적인 세계에 눈을 뜨도록 안내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영산의 60년 사역의 절정인 4차원의 영성을 어떻게 이 시대 영적 씨름의 현장에서 승리해 나갈 수 있도록 적용하는가를 살피는 것이야말로 시기적으로 의미가 있다.

I. 4차원의 영성의 활용

4차원의 영성은 그리스도인들의 세계관을 점검하는 데 있어 실제적이고도 유용하다. 이는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3차원의 세계를 초월하여 4차원의 영적 세계를 체험케 할 뿐 아니라, 개인의 영적 상태를 진단하여 성숙한 성도로 나아가도록 안내한다. 4차원의 영성은 기독교세계관을 영적인 차원에서 조명한 것으로서 기독교 신앙의 본질을 영성에서 본다. 여기서 우리는 신앙의 본질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내용을 결정하며, 본질에 기초한 삶의 내용은 세계관을 구축하게 한다는 사실을 알 필요가 있다. 4차원의 영성은 특히 선교적인 삶을 지향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의 모델로서 제시될 수 있다. 그런 관점에서 4차원의 영성은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보게 하는 영적 안목이며, 성서를 통해 이 시대 성도들이 어떻게 세상에서 다가오는 문제에서 대안들을 찾도록 하는 영적 원리라고 할 수 있다.

4차원의 영적세계가 제시하는 비전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미 이루어짐을 믿는 믿음의 표상이다. 이러한 비전은 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3차원적인 것과는 전적으로 다른 것이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며, 믿음의 사람들에게 구체화된 것이다. 오늘날 교회가 필요로 하는 것은 비전 있는 지도자들이다. 4차원의 영성은 그와 같은 지도자들에게 더 없이 요청된다. 4차원의 영성을 통해 영혼을 구원하고, 사단의 강력한 진을 무너뜨리는 선교적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야겠다.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능력으로 선포하므로 영혼 구원 뿐 아니라, 세속화되어가는 이 세상의 문화에 대응하여 대안공동체를 이루어나가는 사명을 안고 있다. 4차원의 영성이 꾀하는 것은 결국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의 능력을 통해 복음을 증거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를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곳으로 변혁하는데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4차원의 영성은 한국교회를 선교적 교회로 변화시키며, 더 나아가 사회와 문화를 변화시키는 중요한 원동력이 될 수 있으며, 교회가 이 세상에 하나님의 선교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불가결한 요소가 될 수 있다. 오늘날 이 시대 사람들은 복음에 대해 냉담하다. 이런 분위기를 돌파해 나가기 위해 성도들은 복음의 능력을 회복받아 복음을 강력히 외쳐야 한다.

II. 4차원의 영성의 4가지 요소들

4차원의 영성은 성경적 ‘인간이해’로부터 출발한다. 즉, 태초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은 원래 하나님의 ‘숨’(생령)이 그 안에 들어온 순간 긍정적인 생각, 넘치는 믿음, 미래를 움직이는 꿈 그리고 소망의 말을 할 수 있었던 4차원적 존재였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의 타락을 통한 원죄와 그 원죄로부터 시작된 스스로 저지른 죄들로 인해 저주받은 생각, 결핍된 믿음, 불안한 미래에 흔들리는 꿈, 그리고 절망적인 말의 굴레에 갇혀버렸다. 그 결과 4차원적 존재로 창조되었던 인간의 실존은 3차원적 존재로 추락해 버리고 말았다. 4차원의 영적세계는 3차원적 현실에 갇혀버린 인간 실존의 ‘존재적 변화’ 또는 ‘차원 이동적 회복’을 위한 가장 근본적인 원동력이다.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인간은 3차원적인 공간에 갇혀 살면서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보이는 것만 믿고, 현실의 틀에서만 꿈꾸고, 들리는 것만 말하는 존재가 되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를 그 기초로 하는 기독교의 신앙을 통해 인간은 이제 4차원적 세계를 침노하면서 이성을 초월하여 생각하고, 보이지 않는 것을 믿고, 초현실적인 것을 꿈꾸고, 들리지 않는 것도 입술로 고백하는 존재로 자신의 실존을 회복할 수 있는 것이다.

A. 생각 (Thought)

‘생각’은 4차원의 영적세계의 첫번째 요소이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인간을 이용한 생체실험으로 유명했던 독일의 나치군이 실험을 했다. 그것은 실험 대상이 된 포로에게 먼저 자신들이 어떤 실험을 할지 미리 말해 주는 것에서 시작되었다. “너를 통해 할 실험은 너의 팔목에 있는 동맥을 칼로 끊으면 얼마 만에 죽게 되는지 테스트하는 실험이다. 먼저 너를 실험대에 눕히고 눈을 가리고 양 손목을 칼로 베어내고 양 손에서 나오는 피는 양쪽에 있는 통에 떨어지게 할 것이다. 우리의 예상으로는 3시간 정도가 지나면 몸에 있는 피가 다 나와서 너는 죽게 될 것이다”라고 자세히 설명해 주었다. 실험은 시작되었고 정말로 3시간쯤 지나자 그 실험 대상자는 죽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사람은 팔목도 베이지 않았고 피도 한 방울 흘리지 않았는데 죽었다는 점이다.

생각은 크게 육신적인 생각과 영적인 생각으로 나눌 수 있다. 성경은 사람이 육신적인 생각보다는 영적인 생각을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쳐 주고 있다. 로마서 8장 5절에서 7절을 보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성령을 따르는 자는 성령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사망이요 영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다. 삶과 죽음을 결정짓는 것도 바로 생각에 달려 있다는 말씀이다. 이처럼 생각은 긍정적인 결과와 부정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생각은 눈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3차원의 인생을 결정하는 4차원의 중요한 요소인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방식대로 생각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자세를 지녀야겠다.

B. 믿음 (Faith)

히브리서 11장은 흔히 ‘믿음’ 장으로 불린다. 믿음 장에서 주목을 끄는 표현 가운데 하나가 1절에 등장하는 ‘실상’이란 단어이다. 실상을 헬라어로는 ‘히포스타시스’라고 한다. 이는 ‘기초’, ‘확증’, 또는 ‘등기서류’란 뜻이다. 즉, 믿음이란 우리가 꿈꾸고 기대한 것들이 우리 앞에 실제로 펼쳐질 것을 확증해 주는 증빙서류와 같다는 뜻이다. 예를 들면, 홈쇼핑이나 인터넷에서 물건을 주문하면 그 물건이 언제 도착하는지 배달 과정을 전화나 인터넷으로 확인할 수 있게 해 주는데, 우리는 믿음을 바로 그러한 서비스에 비유할 수 있다. 기도하고 바라는 것들이 아직 눈앞에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확증을 받는다. 그렇다고 우리가 아무 것이나 무턱대고 믿는다는 뜻은 아니다. 우리의 믿음은 분명한 대상과 기초가 있다. 살아계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다. 로마서 10장 17절은 믿음의 출발이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확인시켜 준다. 우리의 믿음은 맹신이 아니다. 우리의 믿음은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다.

믿음은 감각과 다르다. 감각이 듣고, 보고, 만지고, 느끼는 3차원에 머물러 있다면 믿음은 감각을 초월한 4차원에서 활동한다. 로마서 4장 18-19절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던”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감각을 초월한 믿음, 이것이 4차원적 믿음이다. 믿음은 운동 에너지를 갖고 있다. 믿음은 양방향으로 움직인다. 즉, 믿음은 긍정적인 방향으로도, 부정적인 방향으로도 움직인다. 긍정적인 믿음은 긍정적인 결과를, 부정적인 믿음은 부정적인 결과를 낳는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좋으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꿈과 희망을 주시는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 태산 같은 문제가 앞에 놓여 있어도 굳센 믿음만 있으면 우리의 운명은 완전히 달라진다.

누구나 4차원의 믿음을 소유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목표를 바라보되 이미 이루어진 현실로 믿고 기도하는 믿음이 있어야겠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먼저 바라보게 하시고(창 13:14), 그 다음에 약속을 주셨다(15절).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는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의 씨앗을 뿌리는 삶을 실천해야겠다. 사람은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갈6:7-8). 마음에 소원하는 바를 이미 받은 줄로 믿고 하나님께 감사하면 현실에서 감사할 일이 생기는 것이다. 4차원적인 믿음을 소유하는 가장 확실한 길은 성령과 동행하는 것이다. 성령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실 뿐만 아니라(고전 8:26), 하나님의 깊은 것도 통달하시는 분이시다(고전 2:10). 믿음의 사람이란 매 순간 성령을 삶 속에서 인정하고, 환영하고, 의지하고, 모셔 들이는 사람이다. 아브라함에서 사무엘까지 히브리서 11장에 등장하는 모든 인물들은 4차원의 영적세계에 대한 인식을 갖았던 믿음의 사람들이다. 불신앙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지만(히11:6), 믿음은 주님을 감동시킨다(마8:10).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만을 들어 사용하신다.

C. 꿈 (Dream)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변화된 영적 피조물이다(고후 5:17). 우리가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계의 영적 원리를 바르게 이해하고 생활에 적용하면 이전보다 더 깊은 영적 세계, 곧 4차원의 삶을 살 수 있게 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승리로 이끄는 은혜를 이미 예비해 두셨으며, 우리는 그 은혜를 이제 받아 누려야 한다. 이와 관련해서 4차원의 영적 세계를 움직이는 네 가지 핵심 요소 가운데 세 번째인 ‘꿈’에 대해 우리는 열려 있어야 한다. 꿈은 신비의 영역이다. 오직 현실과 상황만 바라볼 때는 보이지 않던 가능성이 꿈을 꾸면 비로소 보이기 시작한다. 4차원의 영적세계의 원리로서의 꿈은 현실과 상관없이 더 나은 미래를 기대하며 소원과 비전을 마음에 품게 해준다.

‘믿음’과 마찬가지로 ‘꿈’도 양방향으로 움직이는 힘이 있다. 하나님의 뜻에 맞게 꾸는 긍정적이고 창조적인 꿈은 고귀한 결실로 이어진다. 마틴 루터의 꿈이, 언더우드와 아펜젤러의 꿈이 그러했다. 반면, 욕심과 이기심으로 잉태된 꿈은 한 개인과 사회, 국가와 세계를 비극과 파멸로 이끌기도 한다. 우리는 꿈의 이같은 놀라운 잠재력을 인식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바르고 거룩한 꿈을 꿀 수 있어야겠다.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 있다. 하나님은 성경과 성령을 통해, 설교와 기도 시간 가운데 꿈을 주신다. 하나님의 꿈은 인간의 꿈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고 광대하시다. 하나님께서는 꿈이나 환상을 통해 성경 속의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 주셨다. 아브라함(창15:1), 야곱(창31:11-13), 요셉(창37:5), 솔로몬(왕상3:5), 에스겔(겔11:24), 다니엘(단2:19), 마리아의 남편 요셉(마1:20), 동방박사들(마2:12), 베드로(행10:9~16), 바울(고후12:1-4)이 모두 꿈이나 환상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사람들이다. 우리가 꿈을 꿀 수 있는 근거는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께서는 삼중으로 타락하여 죄와 절망 가운데 빠진 인류를 위해 삼중 구원과 삼중 축복을 베푸심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 번 꿈을 꾸게 하였고, 은혜 안에서 아름다운 미래를 열어갈 수 있도록 해 주셨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을 통하여 인류와 화해를 이루신 하나님(롬 5:10) 안에서 우리는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게 되는 꿈을 꿀 수 있게 되었다.

하루는 야곱이 그 아들 요셉을 불렀다. 형들이 양떼를 잘 치고 있는지 확인해 보라고 하였다. 요셉이 형들 있는 곳을 발견했을 때, 형들은 요셉을 보고 “꿈꾸는 자가 오는 도다”라며 빈정댔다(창 37:19). 그리고는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자”(20절)라며 요셉을 죽일 생각으로 구덩이에 던져 넣었다. 그러나 이렇게 말할 수 없는 시련에도 불구하고 후에 모든 일은 요셉의 꿈대로 이루어졌다(창 39~45장). 꿈이 한 사람의 일생을 이끌어간다. 꿈과 환상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4차원의 영적 요소인 것이다. 거룩한 꿈을 꾸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꿈을 이루실 것을 믿기에 기도하기를 쉬지 않는다.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는다. 꿈을 위해 목표를 세우고, 작은 일부터 실천해 나간다. 그러나 꿈이 없는 백성, 목시가 없는 사람들은 계획도 실천도 없이 살다가 결국 쇠퇴의 길로 접어들고 만다(잠29:18). 꿈이 있으면 순례자이지만, 꿈이 없으면 방랑자일 뿐이다. 이 시대에는 현실을 보고 체념하는 자가 아닌 ‘꿈꾸는 자’가 필요하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자신의 꿈을 현실로 옮기며 세상을 변화시키려 애쓰고 있다. 하물며 하나님 안에서 성도가 꾸는 거룩한 꿈의 힘과 과장력이 어떻게 될까? 그것은 실로 거대한 것이다. 현실 세계를 초월해 쉽게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눈앞에 펼쳐질 것이다.

D. 말 (Language)

4차원의 영적세계는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롬4:17)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이다. 4차원의 영성으로 무장한 성도는 삶 속에서 변화와 기적을 맛보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사명자가 된다. 언어는 바로 4차원의 영성을 개발하고 강화하는 데 없어서는 안될 요소다. 인간의 언어에는 엄청난 에너지가 내재되어 있다. 언어는 하나님의 창조사역에 있어 중요한 요소였다. 창조의 계획이 세워졌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보이는 현실로 나타난 것처럼 말에는 창조력이 있다. 따라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중 말의 창조력도 일부 가지고 창조되었다. 완벽하지는 않지만 사람의 말에는 창조력을 가지고 있어 부정적인 말을 하면 부정적인 요소들이 자라게 되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긍정적이고 창조적이며 생산적인 말을 하면 당연히 창조된 환경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민수기 14:28절은 “여호와와 말씀에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라고 말씀한다. 야고보서 3장에 보면 우리의 말을 묘사하는 두 가지 비유가 등장한다. 첫째는 말(馬)에 물리는 재갈이다.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 몸을 제어하는 것이라”(약 3:3). 말의 입에 물려진 자그마한 재갈이 힘세고 덩치 큰 말을 제압하는 것처럼, 인간의 혀는 온 몸을 제어하는 힘이 있다는 것이다. 둘째는 큰 배를 제어하는 작은 키다.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써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되 큰 것을 자랑하도다”(약3:4-5). 물에 잠겨 보이지 않는 배의 키처럼, 우리 입속에 가려진 혀가 움직이기 시작하면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고 삶 전체를 조정하는 위력을 보이는 것이다. 말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도(창1:3), 인간이 구원을 얻는 과정에도(롬10:9-10) 사용될 만큼 중요하다. 실제 생활에서도 한 마디 격려의 말이 한 사람의 인생을 수렁에서 이끌어내며, 반대로 생각 없이 던진 말이 주변의 사람들에게 일평생 상처를 남기기도 한다. 그래서 성경은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려있다고까지 말씀한다(잠18:21).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거듭난 사람은 언어생활에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 성도가 하나님을 찬양하던 입을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헐뜯고 비난하는 것은 온당하지 못하다. 마치 단물과 쓴 물이 동시에 나오는 샘처럼(약 3:10~11) 쓸모가 없는 존재로 여겨질 뿐이다.

욥은 사단의 참소로 인해 순식간에 재산과 자녀들을 잃고, 자신의 몸마저 심한 종기로 고통 받게 됐다. 그러자 그의 아내는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며 독설을 퍼부었지만 정작 욥은 그가 당한 모든 일에 대해 입술로 죄를 범하지 않았다(욥2:9-10). 이것이 우리가 본받고 따라야 할 언어생활이다. 독설을 퍼붓는다고 나아지는 것은 하나도 없다. 하지만 성경은 입을 지킴으로 자기 생명을 보존하게 된다고 말씀한다(잠13:3). 말은 4차원의 영적세계를 가장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요소이며, 나머지 세 요소인 ‘생각’과 ‘믿음’과 ‘꿈’을 현실화하는 지침서이기도 하다. 성령께서는 늘 용기와 위로와 희망의 언어를 사용하신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한 신앙인이라면 긍정적이고, 적극적이며, 창조적인 말로 자신의 언어생활을 무장해야 할 것이다.

III. 4차원의 영성에 대한 질문과 올바른 인식

영산은 역사상 최대 교회의 설립자이지만 그의 신학을 검토하여 비판하거나 헐뜯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 왔다. 사차원의 영성에 관한 영산의 가르침에 대한 비판들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질문들에 대하여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는가?

1. 사차원의 영성은 축복과 보상을 동기로 한다. 자기 백성이 성공하기를 바라는 하나님께 고난의 신학의 여지가 있는가?
2. 긍정적인 사고, 고백, 바라봄이란 위조된 믿음은 아닌가? 더욱 물질을 정신보다 우위에 놓는 여러 테크닉을 동원해서 현실을 바꾸어 보려는 시도는 하나님의 주권을 조작하려고 한다는 점에서 뉴에지판 주술에 해당하는 것은 아닌가?
3. 사차원에 대한 가르침은 하나님을 하나님의 피조물과 같은 단계, 혹은 차원에 놓음으로써 하나님의 초월성을 제한하거나 부인하지는 않는가?

4. “믿음의 법칙”, 혹은 “사차원의 법칙”을 제정하는 것은 하나님을 상자에 가두어 넣고 하나님의 주권을 빼앗으며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통제하도록 하는 처사가 아닌가?

5. 하나님 자신이 믿음 안에서 역사하시거나 “믿음의 법칙”에 따라 움직이시는가?

6. 긍정적인 생각, 말, 바라봄의 기술들은 성경의 가르침이 아니라 모두 샤머니즘과 같은 컬트에서 시작된 것이 아닌가? 바라봄의 법칙과 긍정적인 고백을 통해 창조적인 능력을 받기를 추구하는 것은 인간이 하나님과 상관 없이 자기 힘으로 신이 되려는 헛된 욕망에서 나온 것은 아닌가?

IV. 제언들

1. 사차원의 영성은 결코 개인의 이기적 욕심이나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한 교리도 아니고, 고난의 자리를 인정하지 않는 치우친 승리주의의 교리도 아니며,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 인간에 대해서만 포기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잘못된 견해도 아니다.

2. 하나님은 언제나 주권적인 하나님이시며 뜻하시는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다(사40:13-14). 사차원의 삶은 인간이 하나님을 끌어들이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수단이 될 순 없다. 사차원의 영성은 오히려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일하며 하나님의 목적이 삼차원의 자연계에 나타나는 것을 목격하라는 초대장이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고전3:9)인 것이다.

3. 영산의 가르침의 핵심은 “하나님 영광”이다. 인간을 높이는 것에 근거한 교리는 모두 실패하게 되어 있다. 사차원의 영성을 삶에 적용하면서 신유와 축사, 축복과 형통을 추구할 수 있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을 궁극적으로 높여 드리는 데 있는 것이다.

4. 사차원 영성의 근거는 “오직 성경”이라는 표어로 대변되는 성경의 우선성이다. 1517년에 시작된 종교개혁은 모든 기독교 신학이 궁극적으로 성경에 근거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성경만이 교리의 필요충분한 근원이라고 천명하였다. 그리스도인의 생각, 비전과 꿈, 믿음과 말을 통해서 얻고자하는 결과는 모두가 성경의 정신과 성경의 진리에 부합되어야만 한다.

5. 사차원의 영성에 대한 조목사의 가르침은 현대 기독교를 성장시키고 생명력 있게 하는 일에 크게 공헌하였다. 쓰라린 한국전쟁의 경험 이후에 남한에서 일어난 놀라운 영적, 사회적 변화는 영산의 가르침이 올바른 것이었음을 보여 준다. 신자들이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사차원 영성 사이에서 균형을 잃지 않으면서 사차원 영성의 가르침을 삶에 적용한다면 이 놀라운 진리는 전세계 수백만 사람들의 삶에 크나큰 축복으로 계속적으로 역사하게 될 것이다.

V. '4차원의 영적 세계' 에 관한 영산과의 대담

1. '4차원의 영성'의 개념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세계는 3차원의 세계입니다. 다시 말하면 물질, 시간, 공간이 3차원의 세계 속에서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손으로 느낄 수 있는 세계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고 히브리서 11장에 말씀을 하고 있는 것처럼, 이 3차원의 세계는 스스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무엇이 3차원의 세계를 창조하고 변화시키는지 그 원리를 하나님께로부터 계시를 받아 쓴 책이 바로 『4차원의 영적세계』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땅이 공허하며 혼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고 했습니다. 땅, 물, 시간, 공간은 다 있고 그것들은 눈에 보이는 것인데, 그 위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성령이 운행하셔서 새로운 세계를 창조하시는 것을 읽을 수 있습니다. 제가 기도원에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마음속에 깨닫게 해주시기를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3차원의 세계는 그 배후의 영적세계에 의해서 변화가 된다는 것이고, 그 영적세계와 연결되면 우리의 기도가 3차원의 세계를 변화시키는 굉장한 원동력이 될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2. 4차원 영성의 요소들인 생각과 믿음과 꿈과 말을 어떻게 깨닫게 되셨습니까?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나타났는데 말씀은 하나님의 생각이요, 그 하나님의 생각은 인간의 생각을 매개로 해서 나타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인간과 관계를 맺을 때는 꿈과 환상이 언제나 개입됩니다. 그 다음에는 믿음이 중요한데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가 맺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강력한 입술의 신앙고백을 통해서 언제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를 볼 때에 생각과 꿈과 믿음과 말씀이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4차원의 하나님의 능력이 3차원이란 현실적 물질세계 속에 나타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 4차원 영성의 첫 번째 요소는 생각의 변화입니다. 책을 보니 새마을 운동이 목사님께서 제안한 새마을 운동에서 시작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그것은 일종의 야사인데 박정희 대통령이 우리도 잘 살아보자는 운동을 전개할 때는 저는 서대문에서 전인구원에 대한 복음을 활발하게 증거하고 있었습니다. 박 대통령이 하루는 저를 저녁식사에 초대해줘서 가보니까 아무 자원도 없는 이 나라 국민을 살리려면 어디서 출발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그 때 제가 “자원은 물질적인 자원이 아니라 마음의 자원에서 출발해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모든 물질적인 자원은 근본이 그 사람의 마음 자원에 있습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는 신념이 있으면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 있으니까 우리 국민이 잘 살기 위해서는 물질적인 것보다도 마음에 새로운 큰 부흥과 운동이 일어나야 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새로운 마음의 운동을 일으켜야 이 나라가 살 수 있다고 말한 것이 화두가 되어서 새마을 운동으로까지 이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 4차원 영성의 두 번째 요소는 믿음입니다. 자연적인 믿음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이 어떻게 다른지 좀 설명해 주십시오.

자연적인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표현하는 신념입니다. 스스로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는 신념이 자연적인 신념인데, 사람은 모두다 이 신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은행을 믿고 우체국을 믿고 또 부모를 믿고 형제를 믿고 이웃을 믿고 장사하는 사람은 상거래하는 상대를 믿고 모든 삶이 믿음이라는 바탕 위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성경적인 믿음은 초자연적인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느냐면 그분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5. 4차원 영성의 세 번째 요소는 꿈입니다. 때로는 인간적인 꿈과 하나님이 주시는 꿈은 혼동될 때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사람들은 모두 다 이 세상에서 꿈을 품고 삽니다. 꿈이 없는 사람은 망한다고 했으니까 사람들마다 조그만 꿈으로부터 시작해서 큰 인생의 꿈을 갖게 되고 또 꿈이 무너지면 좌절하고 자살하기도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꿈은 사람이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꿈이 아니고 그 출발점이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꿈을 품게 되는 것인데 그런 꿈은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감화 감동으로 도와줘서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꿈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것인데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나도 그렇게 될 수 있다고 꿈꾸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6. 4차원 영성의 네 번째 요소는 말입니다. 사람이 말의 권세를 무엇에 근거해서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말도 역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인간의 말과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인간이 동물보다 우수한 것은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건 말 속에는 창조적인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주와 만물을 지으실 때 말씀으로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창조성이 있다는 것은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에 있습니다. 말이 창조적인 영역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말을 파괴적으로 하면 역창조적인 일이 생겨날 수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긍정적으로 말을 하면 창조적인 영역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인간의 말도 그렇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 말씀을 우리가 시인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성경에도 주님이 이 산더러 명하여 저 바다에 던지라 말하고 그 말한 것이 이를 줄 마음에 믿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하나의 도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입술의 긍정적인 시인은 우리 신앙인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을 입는 중대한 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7. 4차원의 영성은 현실세계에서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4차원에는 영적인 4차원이 있고, 인간적인 4차원이 있습니다. 인간은 동물과 달리 영적인 존재이기에 인간적인 4차원이 있습니다. 인간은 생각도 창조적으로 할 수 있고, 꿈도 꿀 수 있고, 신념도 가질 수 있고, 담대한 긍정적인 말도 할 수 있습니다. 인간적인 4차원을 통해서 새로운 세계를 개척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3차원의 세계 속에서 새로운 세계를 구축한 사람들은 인간적인 4차원의 세계 속에서 역사한 것입니다. 그런데 영적인 4차원은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성령의 4차원 속에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 품질이나 양은 도저히 인간적인 4차원과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것입니다. 영적인 4차원에 들어가니까 홍해수도 갈라지고, 만나도 내려오고, 바위에서 물이 터져 나오고, 전쟁에서 이기기도 하는 기적이 따르는 것입니다. 성령의 4차원은 영원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은 절대로 영적인 4차원을 개발할 수 없습니다. 성령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인간적인 4차원을 받아들여더라도 큰 변화를 3차원의 세계에 가져올 수

있습니다. 독일의 히틀러는 악한 꿈, 악한 신념, 악한 말을 한 사람입니다. 그는 인간적인 4차원, 악마의 4차원에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인간도 인간적인 4차원에서 창조의 역사를 할 수 있고, 마귀도 사람들을 통해서 악마적인 4차원의 세계를 통해서 굉장한 파괴력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가져오는 4차원, 즉 영혼 차원의 역사를 하는 사람은 굉장한 하나님의 생명과 사랑의 구원을 가져올 수 있는 것입니다.

8. 교회 지도자들이 4차원의 영성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간단합니다. 생각을 변화시키는 것은 말씀을 열심히 공부해서 내 생각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차원에서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꿈꾸시는 것을 우리가 꿈꾸고,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성경에 예수님이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실 때의 헬라어는 '에케테피스틴 데오'라고 해서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고 그것을 개발해야 합니다. 끊임없는 노력과 훈련에 의해서 점점 그 세계 속에 동화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훈련을 하고 4차원의 세계 속에 살 수 있으면 그만큼 더 많은 하나님의 능력이 생활 속에 나타날 수 있습니다.

9. 그렇다면 4차원의 영성을 어떻게 훈련할 수 있을까요?

4차원 영성의 훈련은 이러한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알고 그 세계에 끊임없이 자기도 들어가서 사용함을 당하겠다는 소원을 가지고서 열심히 실천해야 합니다. 또 4차원의 영적세계는 말씀과 성령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많은 말씀 연구와 기도와 성령충만의 삶을 추구해야 가능합니다.

10. 이런 4차원의 영성과 리더십은 어떤 관련성이 있습니까?

리더는 다른 사람의 길을 앞에서 선도하는 사람인데 창조적인 선도를 하려면 선도하려는 사람 자체가 창조적인 꿈을 가지고 창조적인 생각과 믿음과 언어를 사용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리더는 4차원의 영적세계 속에서 살아야 되고 체험해야 되고 그 속에서 리더십을 발휘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4차원의 영적세계는 창조적인 세계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일반 세상의 타성에 젖은 삶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 분명한 리더십을 발휘할 때 사람들이 같이 따라와서 함께 동참할 수 있습니다.

11. 목사님께서 보실 때 리더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비전입니다. 왜냐하면 리더는 사람들을 끌고 가야 되는데, 지도자가 스스로 목표와 꿈이 없으면 사람들을 끌고 갈 수 없지 않겠습니까? 클린턴 대통령이 리더십의 요소로 인내를 말했는데 창조적인 세계 속에서는 반드시 시련이 다가오게 됩니다. 시련을 극복할 수 있을 만한 인내력이 없으면 결코 창조적인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모든 꿈은 한번은 눈앞에서 깨어지는 시련을 겪게 됩니다. 꿈이 일사천리로 이루어지는 법은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그런 시련을 인내로 통과하고 꿈을 포기하지 않으면 그 꿈이 이루어집니다. 성공한 사람과 성공하지 못한 사람의 차이가 여기에 있습니다. 성공하지 못한 사람은 꿈을 가지고 있다가 큰 시련에 부딪히면 깨어져 버립니다. 그러나 성공한 사람은 큰 시련을 겪고 꿈이 산산조각이 나는 것 같지만 다시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그 꿈을 가지고서 전진합니다. 그러므로 인내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12. 비전의 원천은 성령이십니다. 성령님과 동행하고 인도하심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성령님과 동행하려면 성령님의 인격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있어야 합니다. 성령님은

지정의를 가진 인격적인 하나님이기 때문에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이해하고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 들이고 의지하고 끊임없는 성령과의 가까운 친교와 동역이 있어야 합니다. 성령님을 하나의 신학적인 용어로 생각하고 무생물로 생각하고 이용만 하려고 하면 성령과의 동행은 되지 않습니다. 성령은 성부와 성자와 더불어 제3위 되시는 성령 하나님인데 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 들이고 의지하고 끊임없이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성령과 동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13. 앞으로 한국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한국교회의 발전은 한국교회의 리더십에 달려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이끌어가는 주의 종들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는 한국교회의 평신도 리더인 장로, 안수집사, 서리집사들이 틀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너무 오래된 전통 속에 찌들어 있어서 새로운 성령의 바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더 이상 발전할 수 없습니다. 한국교회는 여러 가지 현대사의 시련을 통해 자각을 일으키고 성령의 역사를 받아들여 상당히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경제적 발전이 일어나고 평안한 데 처하게 되니 찌끼가 낀 것입니다. 안일함에 묻혀 모든 것이 냄새가 나고, 부패하게 되었으니 이제 새로운 대혁신이 일어나야 합니다.

(크리스천투데이와의 대담)